

98 2/21	A8-2	94
------------	------	----

A8-2-94

교사,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 일시 : 1997년 6월 17일(화) 오후 2시

☞ 장소 : 한국 교회 백주년 기념관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부 설 성폭력상담소

<표2-1> 교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 실태 (친구의 경우) 단위 : 명(%)

설문문항	한두번 있었음	여러번 있었음	유경험자	전체(N)
성추행 I 선생님이 성적언어를 사용함	500(22.2)	158(7.0)	658(29.2)	2,257(100.0)
선생님이 브레지어끈을 당김	247(10.9)	76(3.4)	325(14.3)	2,259(100.0)
선생님이 젖가슴 옆 겨드랑이를 만지작거림	241(10.7)	96(4.2)	339(14.3)	2,260(100.0)
선생님이 젖가슴, 엉덩이에 대해 말하며 막대기로 찌름	205(9.1)	64(2.6)	289(11.9)	2,257(100.0)
선생님이 등이나 엉덩이를 은근히 만짐	478(21.4)	208(9.3)	486(30.7)	2,236(100.0)
선생님이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며 가르침	385(17.1)	167(7.4)	575(24.5)	2,256(100.0)
성추행 II 선생님이 옷속을 더듬거나 자기 몸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함	82(3.1)	22(0.8)	104(3.9)	2,658(100.0)
선생님이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함	86(3.2)	12(0.5)	100(3.7)	2,660(100.0)
선생님이 성관계를 요구	23(0.9)	10(0.4)	33(1.2)	2,655(100.0)
선생님이 강제로 성관계를 함	13(0.5)	13(0.5)	26(1.0)	2,653(100.0)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연구회

한국어학의전개
선정리선임수

도민회를 개최하리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본 토론회는 1998년 11월 10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1부 '현황과 실태'와 2부 '대책 마련'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 성폭력상담소 소장이었던 김현숙 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김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교수의 학내외 성추행, 학내 성추행, 학내 성추행, 학내 성추행"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김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교수의 학내외 성추행, 학내 성추행, 학내 성추행, 학내 성추행"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대책 마련'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교수의 학내외 성추행, 학내 성추행, 학내 성추행, 학내 성추행"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부 설 성폭력상담소

구분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전체	24(1.1)	24(1.1)	24(1.1)	24(1.1)
교사, 교수에 의한	24(1.1)	24(1.1)	24(1.1)	24(1.1)
교내	24(1.1)	24(1.1)	24(1.1)	24(1.1)
교외	24(1.1)	24(1.1)	24(1.1)	24(1.1)
교수	24(1.1)	24(1.1)	24(1.1)	24(1.1)
교직원	24(1.1)	24(1.1)	24(1.1)	24(1.1)
학생	24(1.1)	24(1.1)	24(1.1)	24(1.1)
학부모	24(1.1)	24(1.1)	24(1.1)	24(1.1)
언론인	24(1.1)	24(1.1)	24(1.1)	24(1.1)
기타	24(1.1)	24(1.1)	24(1.1)	24(1.1)
합계	24(1.1)	24(1.1)	24(1.1)	24(1.1)

토론회를 개최하며

토론회를 개최하며

1983년 여성을 위한 국내 최초의 민간 상담기관이자 운동단체로 문을 연 한국여성의전화는 그로부터 현재까지 전국 11개 지부와 6개 지부 준비위원회와 함께 많은 유형의 여성 차별과 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그 사회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성폭력(sexual violence)은 여성의 순결과 남성의 성욕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 구조 안에서 그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성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며 대응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전화가 여러 지역에서 겪게 된 학교 내 교육자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 학생이 어린 학생이고 가해자와 위계관계에 있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고 대학 사회 내에서는 진학 및 취업과 관련해 사제간에 형성되는 강한 권력관계가 성폭력을 더 용이하게 하며 비민주적인 학교문화 및 제도가 피해 학생에게 강한 압력과 위협으로 작용함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의 경우에는 더욱 은폐되고 왜곡되기 쉬웠습니다.

최근에 잇따라 드러난 교사, 교수에 의한 성폭력은 오늘날의 일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남성 우월주의와 왜곡된 성문화가 자리잡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따로 없음을 입증하듯 여성의전화는 지난 80년대에도 교육자에 의한 성폭력을 상담해왔고 한 종합고등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피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쌓아 온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1996년 12월에서 1997년 2월에 걸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사에 의한 성폭력 실태 및 성역할 인식, 성폭력에 대한 인지에 대한 전국적으로 3,000 여건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설문조사에서 학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과 더불어 교수에 의한 대학 및 대학원생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짚고 여러 뜻있는 분들과 함께 학내 성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푸른 계절입니다. 한창 푸르고 힘차게 성장하고 미래를 가꾸어 가야할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생각하며 다함께 힘과 뜻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 예방 지침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운영안내

성폭력상담기관 소개

1997. 6. 17.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회장 신혜수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상덕

性폭력 상담소

< 목 차 >

(성폭력상담소 운영 매뉴얼)

토론회를 개최하며 3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의식 6
 김혜선 (한국여성의전화 상담국장)

대학에서의 성희롱 문제와 이에 대한 접근 39
 이해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원)

교사에 의한 성폭력 : 교육적 문제와 대책 48
 정해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학교 현장에서 본 교사에 의한 성폭력 문제와 대책 52
 김성애 (중앙여고 교사)

1996년 전국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교사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상담통계 57

상담사례로 본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59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 예방 지침 65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운영안내 66

성폭력상담기관 소개 67

1997. 8. 11

수필가 김혜선, 김혜선, 김혜선, 김혜선, 김혜선
 김혜선, 김혜선, 김혜선, 김혜선, 김혜선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의식

김혜선 (한국여성의전화 상담국장)

I. 서론

1) 문제제기

최근들어 중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의 성추행 사건이 보도되고, 학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의 성범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과 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대학내에서도 교사에 의한 여제자 성희롱 사건이 간간히 법정투쟁으로 번지고 있다¹⁾.

그동안 정부는 학교 폭력이 이미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내 문제학생이나 학교 주변의 불량배를 단속하는 한편, 등·하교길의 유해환경 관리, 학교 교육의 개선 등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교사나 교장 등이 어린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를 제어할 어떠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므로 대단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낯선 사람 혹은 이웃, 가족 및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린 여아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들에 대해, 일차적인 대책의 하나로 학교에서의 올바른 남녀 성교육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교육자에 의해 행해진 성폭력은 비록 그것이 극히 일부 교사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사건 발생의 맥락이나 사후처리 등을 볼

1) 93년 서울대 우조교 사건은 손해배상 소송건으로, 97년 5월 서울대 구교수 사건은 무고혐의에 의한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이다. 이들 모두 성폭력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학원내 교사·교수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은폐,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의 추방이 얼마나 요원한 일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그동안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인권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에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그 일환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을 조사하게 되었다. 본 조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실태파악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당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로 인한 심리적 상처는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 보았다.

두 번째는, 의식과 태도 분석으로 교사에 의한 성적행위가 어떤 느낌을 주며, 이를 성폭력으로 인식하는가, 교사에 대해 성폭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가를 살펴 보았다.

세 번째는, 사후 대응방식으로 교사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에 대해 추후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자신의 피해사실 드러내기와 지지망과의 연계에 대해 살펴 보았다. 또한 이러한 대응방식을 강화시킬 한 방안인 성폭력 교육이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교사의 학생 성폭력의 핵심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이를 기초로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이같은 구성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사후 대응방식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그 성격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교사의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는 피해 여학생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도조사가 곁해졌다.

2) 조사방법, 시기 및 대상

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96년 12월 1일-15일까지, 97년 2월 10일-20일까지 전국적으로 행해졌으며, 전국 조사를 위하여 한국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의 실무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각 지역의 학교, 학원, 교회, 학생들의 모임을 방문하여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서 학년별로 20-30명 정도로 국한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는 본 조사의 성격상 한 학교내의 중복응답을 가급적 피하려는 고려 때문이었다. 여중고생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중학교 1,464명 고등학교 1,578명으로 총 3,042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그 중에서 무성의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975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집지역과 학교별 조사대상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표집지역과 학교별 조사대상인원 단위 : 명(%)

지역	서울	인천	수원	강화	성남	청주	광주	대구	창원	부산	전체
인원	585 (19.7)	462 (15.5)	178 (6.0)	159 (5.3)	192 (6.5)	198 (6.7)	328 (11.0)	483 (16.2)	84 (2.8)	306 (10.3)	2,975 (100.0)
학교 인원	중학교 1,419 (47.7)			고등학교 1,556 (52.3)			전체 2,975 (100.0)				

II. 학원 성폭력의 실태

1) 발생의 맥락과 지속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은 학생이 아무런 저항없이 자신의 요구에 순종할 것을 알기 때문에 교사가 손쉽게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맥락에서 시작된다.

기존의 사례를 보면²⁾, 방과 후 담임교사가 심부름 시킬 것이 있다고 하면서 아이를 교실에 혼자 남게 한 후 성추행한 사례, 귀가 길에 집에 데려다 준다면 차에 태워가다가 강간한 사례, 생활지도를 빙자해 자기 집으로 불러 강간한 사례, 예절지도를 한다고 예절방으로 불러 성추행하고 성적 행위를 게임이나 특별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암시한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같이 교사는 학생과 개인적으로 있게 되는 기회를 교육제도 속에서 수월하게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아이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애정과 존경의 대상, 그리고 복종해야 하는 권위

2) 앞으로 인용되는 사례들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터」, 1996, 8 ; 한겨레, 1996년 7월16일 ; 내일신문, 1996년 7월10일, 17일 ; 동아일보, 1996년 7월12일 ; 시민의신문, 1996년 7월15일 ; 충청매일, 1996년 7월22일 ; 충청일보 1996년 7월19일 ; 중부매일신문, 1996년 7월20일 ; 청주여성의전화 학원성폭력 대책자료 ; 신양중학교 공동대책위원회 경과보고서.

를 가진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그러한 유인에 쉽게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학생의 취약성을 그대로 반영시킨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은 가해자가 한 피해자를 계속해서 성폭력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여러 명의 피해자를 낼 수도 있는 구조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학생이 정규적인 교육체계 내에 있으면서, 학교를 계속해서 나오는 한 가해자가 스스로 성폭력을 중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담임 등 직접적으로 학생에게 교육과 훈육, 생활지도 등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은밀하게 성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 혼자서 그 통제권을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고의적 성폭력 행위는 대부분 성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체검사나 용모점검 등 교육활동이 행해지는 과정 중에 여러 명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성추행에 대해서도 학생들 간에 교사에 대한 공공연한 정보가 공유되는 경향은 있으나, 학생들은 이를 벗어날 조직적인 기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므로 교사의 성폭력은 지속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교사의 성폭력이 지속되는 것은 가해자에 의해 비밀로 부쳐질 것이 종용되어 은폐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 과정에서 남에게 알리면 혼내 준다거나 힘이 사용될 거라는 위협, 제 3자가 화를 낼 거라는 위협, 퇴학시키겠다는 위협, 어린이나 부모에게 해가 미치리라는 위협 등 다양한 협박이 행해진다.

실제 사례들에서 보더라도, 유치원 원장이 예절교육을 시킨다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는 흥기로 인형을 찌르면서 부모에게 말하면 다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10살 여아를 60대 담임교사가 계속 성추행하고 만약 발설할 때에는 퇴학 당할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취업을 앞둔 여자상업고등 학생을 성폭행 한 후 폭로하면 성적과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던 것이다.

성폭력 피해 여아들이 느끼는 성적인 수치에 더하여 가중된 처벌의 위협은 여학생으로 하여금 교사의 성폭력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강압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성폭력인

지 조차 모르는 유아들의 경우에 그 같은 위협은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여겨지므로 지속적으로 은폐되기도 한다.

2) 학원 성폭력의 발생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행한 성폭력 피해자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강간 피해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485.9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검찰의 공식집계상 나타난 발생건수 10.9보다 44.6배 높은 것이다. 또한 강간 피해 신고율은 2.2%로 추산되는데 이같이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성폭력 가해자가 주로 아는 사람이고, 폭력에 대해 순결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수치심을 갖기 때문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86).

이같은 사실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발생율이 생각보다 매우 높으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른 형태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일부 보여주는 것이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장소 및 가해자와의 관계를 학원(학교)으로 축소해 볼 때 학원내 성폭력의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다³⁾. 하지만 몇 조사 및 사례발표에 의하면 학원 성폭력, 특히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청소년대화의 광장이 전국 초·중·고교생 1,539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폭력 및 청소년 폭력실태” 조사에 의하면 심각한 성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중 2.4%가 선생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114). 이 비율은 다른 가해자와의 관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성폭력의 가해자로 학교 교사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그 비율은 대단히 충격적이라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2,548명 중 37.8%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95). 사실 학생 성폭력의 가해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피해 학생과의 관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직접적으로 학원과 관련된 성폭력 경험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가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지문항목에서 교사를 누락시키고 있어,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고려하고 있지 않아 90년대 초까지도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이 비밀스럽게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다.

고 할 수 있다.

일반조사는 아니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에서는 교사, 강사에 의한 성폭력이 91-92년의 경우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 1,260건 중 35건으로 4.3%, 93년에는 841건 중 30건으로 3.6%, 94년에는 1,356건 중 39건으로 2.9%, 95년에는 1,021건 중 36건으로 3.5%, 96년 상반기에는 719건 중 23건으로 3.2%를 보이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8). 이상담자료를 통해 볼 때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은 매우 감추어진 문제이며, 이를 감안한다면 그 발생율은 매우 높으며 심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은 다른 장소, 다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다를 바 없으며, 모든 유형의 성폭력이 망라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란한 말이나 성적 농담을 하는 것, 손이나 어깨·허리·엉덩이 등을 성적 의도를 가지고 만지는 것, 가슴·성기 등을 만지거나 만지도록 하는 것, 성기안에 손이나 이물질을 넣는 것, 강제로 키스하는 것, 강간> 등 언어적 성폭력에서부터 심각한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 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이러한 성폭력은 때로는 공공연하게 때로는 비밀스럽게 발생한다. 예컨대, 학교 안에서 지나치는 중에, 신체검사 중에 혹은 청소하는 학생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교사가 만지는 등 매우 공개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은밀한 장소나 밀폐된 공간에서 성추행이나 강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개적인 성추행이라고 해서 그 피해의 심각성이 덜한 것은 아니며, 성폭력이 아닌 장난이나 애정의 표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 피해 당사자들이 성적인 수치심을 극도로 느낀다는 점에 있다.

본 조사에서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 경험이 어떤 사전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설문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위의 예들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이미 보고된 사례를 통해 학교 내에서 여학생에게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성희롱과 심각한 성추행의 유형으로 다음의 10가지를 구성하여 이들을 경험한 적이 있

는가를 알아 보았다. 그 내용은 <표 2>를 통해 살펴 보자.

<표 2> 교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 실태 단위 : 명(%)

설문문항	한두번 있었음	여러번 있었음	유경험자	전체(N)
성추행 I 선생님이 성적언어를 사용함	265(10.9)	68(2.8)	333(13.7)	2,433(100.0)
선생님이 브레이저끈을 당김	76(3.1)	19(0.8)	95(3.9)	2,439(100.0)
선생님이 젖가슴 옆 겨드랑이를 만지작거림	140(5.7)	26(1.1)	166(6.8)	2,436(100.0)
선생님이 젖가슴, 엉덩이에 대해 말하며 막대기로 찌름	55(2.3)	15(0.6)	70(2.9)	2,439(100.0)
선생님이 등이나 엉덩이를 은근히 만짐	376(15.4)	86(3.5)	462(19.0)	2,437(100.0)
선생님이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며 가르침	200(8.2)	47(1.9)	247(10.1)	2,436(100.0)
성추행 II 선생님이 옷속을 더듬거나 자기 몸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함	20(0.7)	7(0.3)	27(1.0)	2,745(100.0)
선생님이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함	37(1.3)	5(0.2)	42(1.5)	2,756(100.0)
선생님이 성관계를 요구	6(0.2)	4(0.1)	10(0.4)	2,745(100.0)
선생님이 강제로 성관계를 함	5(0.2)	4(0.1)	9(0.3)	2,752(100.0)

<표 2>를 통해 볼 때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중 선생님이 은근히 등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유형이 가장 많았고(응답자의 19.0%, 462명) 다음으로는 성적언어 피해를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13.7%, 333명) 나타났다. 응답대상자 5명 중의 한명은 이 유형의 피해를 한두번 이상 경험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며 가르치는 유형이(10.1%, 247명) 많았다. 이렇듯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유형은 이미 보고되어 온 사례나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대체로 선생님의 학생에 대해 장난이나 애정표현을 한 것, 관심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정도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고, 제삼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지형에 놓여 있으나 뒤에서 나올 조사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여학생의 젖가슴 근처를 손으로 만지작 거리는 경우도 많아 한두번 이상의 유경험자는 6.8%(166명)이며 브레이저끈을 잡아 당기거나 가슴, 엉덩이를 막대기 같은 것으로 찌르는 것도 3%(70명)-4%(95명)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II 유형은 I 유형보다는 비율이 낮게 나왔으나 그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선생님이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한 경우를 한두번 경험한 사람은 1.3%(37명), 여러번 경험한 사람은 0.2%(5명)으로 총 1.5%(42명)이었다. 선생님이 여학생의 몸을 옷 속으로 더듬거나 자기 몸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는 것은 한 두 번의 경험은 0.7%(20명), 여러번의 경험을 한 여학생은 0.3%(7명)로 나타났다. 선생님으로부터 한 번이상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우도 0.4%(10명)이고 강간을 당한 여학생은 0.3%(9명)이었다. 그 중 여러번의 강간을 당한 여학생이 4명이나 된다.

여기에서는 본인의 피해경험과 주변 친구들의 피해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학원 성폭력이 한 교사에 의해 피해 대상이 여러명이 될 수도 있고, 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록 자신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한 교사에 의해 다른 학생이 입은 피해를 밝혀내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보다 주변 친구들이 경험한 성폭력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이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매우 빈번하게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같이 <표 2>에서 제시하는 성폭력 유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83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3.7%이다. 다음은 위의 열가지 성폭력 종류를 얼마나 경험했는지 알아 보았다.

<표 3> 경험한 성폭력 종류의 수 단위 : 명(%)

한 번도 없음	한 종류 이상 : 831 (33.7)								
	1종류	2종류	3종류	4종류	5종류	6종류	7종류	8종류	10종류
1,638 (66.3)	365 (14.8)	233 (9.4)	124 (5.0)	64 (2.6)	22 (0.9)	14 (0.6)	4 (0.2)	3 (0.1)	2 (0.1)

1 종류만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은 365명으로 14.8%이며 2 종류를 경험한 사람은 222명으로 9.4%이다. 가장 많게는 예시된 성폭력 전 종류를 2명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3 종류 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131명에 이른다.

교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훨씬 많이 경험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4>에 의하면 선생님이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강간을 한 경우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험 비율이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에서는 고등학생의 경험이 중학생의 두배에 이르는 것이 많다.

<표 4> 중·고별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종류	빈도	중학생	고등학생
선생님이 성적언어를 사용함	한두번	96(8.2)	169(13.3)
	여러번	27(2.3)	41(3.3)
	소계	123(10.5)	210(16.6)
선생님이 브레이저끈을 당김	한두번	29(2.5)	47(3.7)
	여러번	11(0.9)	8(0.6)
	소계	40(3.4)	55(4.3)
선생님이 젖가슴 열 겨드랑이를 만지작거림	한두번	46(3.9)	94(7.4)
	여러번	7(0.6)	19(1.5)
	소계	53(4.5)	113(8.9)
선생님이 등이나 엉덩이를 은근히 만짐	한두번	122(10.4)	254(20.1)
	여러번	29(2.5)	57(4.5)
	소계	151(12.9)	311(24.6)
선생님이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며 가르침	한두번	65(5.5)	135(10.7)
	여러번	15(1.3)	32(2.5)
	소계	80(6.8)	167(13.2)
선생님이 젖가슴, 엉덩이에 대해 말하며 막대기로 찌름	한두번	15(1.3)	40(3.2)
	여러번	8(0.7)	7(0.6)
	소계	22(2.0)	47(3.8)
선생님이 옷속을 더듬거나 자기 몸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함	한두번	5(0.4)	15(1.1)
	여러번	3(0.2)	4(0.3)
	소계	8(0.6)	19(1.4)
선생님이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함	한두번	12(0.9)	25(1.7)
	여러번	3(0.2)	2(0.1)
	소계	15(1.1)	27(1.8)
선생님이 성관계를 요구	한두번	2(0.2)	4(0.3)
	여러번	2(0.2)	2(0.1)
	소계	4(0.4)	6(0.4)
선생님이 강제로 성관계를 함	한두번	2(0.2)	3(0.2)
	여러번	2(0.2)	2(0.1)
	소계	4(0.4)	5(0.3)

<표 5> 성폭력 피해 시기

구분	피해시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추행 I	초등학교	177(20.7)	318(37.1)	211(24.6)
	중·고등학교	32(47.0)	21(31.8)	17(25.8)

*중복응답임.

그같은 성폭력을 당한 시기를 보면 성추행 I의 경우에는 중학교 시기가, 성추행 II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성추행 I의 경우 설문이 주로 은근한 신체적 접촉에 주어지고, 따라서 신체 변화가 큰 중학교 시기에 훈계 등을 빌미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추행 II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강제로라도) 껴안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초등학교 분위기에 의해 초등학교 시절에서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것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의 (묘한) 성폭력적인 행위가 교육 방식, 훈계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전화될 수 있는 저학년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 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고등학교의 경우 성폭력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조사의 단계가 고교재학 중이므로 앞으로 남은 고교시절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장담할 수 없다. 결국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발생시의 대응방식

① 성추행 유형별 반응

교사의 성폭력이 발생할 때 여학생들은 어떤 반응과 대응을 보이는가. 발생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반응 형태는 지속성의 특성을 갖는 학교내 교사의 성폭력 행위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 조사에서 볼 때 애매모호한 형태를 갖는 성추행 I의 경우 그만 두기만 바라면서 싫은 표정만 짓는 사례가 58.3%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 다음으로는 손을 뿌리치거나 몸을 돌리는 정도가 24.6%, 도망가는 것이 7.7%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느낌을 얘기하면서 그만두게 하는 것은 3.4%에 불과하다. 추가적으로 더 언급한 응답에서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거나 교사에게 면박을 주는 적이 있음도 나오고는 있으나 극히 소수이다. 결국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성폭력에 대한 반응 단위 : 명(%)

반응 구분	그만 두기만 하면서 표정지움	손을 뿌리치거나 몸을 돌림	도망감	그만 할 것을 얘기	저항함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무반응	전체
성추행 I	714(58.3)	301(24.6)	94(7.7)	42(3.4)	---	74(6.0)	1,225(100.0)
성추행 II	55(26.7)	48(23.3)	44(21.4)	42(20.4)	17(8.3)	---	206(100.0)

*본인과 친구 중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례는 모두 응답함.

*--- 표시는 설문 문항이 없는 것임.

교사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이같은 소극적 대응은 세가지 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은 남자 선생님의 행위가 기 때문에 그 권위에 의해 피해 여학생의 대응방식이 매우 소극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배우는 입장, 연령에 있어서 어린 입장, 남자 선생님에 대한 여학생의 입장은 위계에 의한 권력에 의 순종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사의 성폭력이 교육의 형식을 빌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위에서도 확인했듯이 일반적으로 (성폭력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느낌을 밖으로 표출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성추행 I의 경우 특히 그럴 것이므로 적당한 대응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마지막으로 교육으로 포장되어 교사에 의해 주입되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갈등 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다. 결국 피해 당하는 본인과는 상관없는 구조적 한계에 의해 적절한 대응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에서 짚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무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6.0%로 74명이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학교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너무나

만연한 성추행 문화에 의해 이를 무감각하게 혹은 무기력하게 받아 들일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성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 줄 교육과 심리적 의지를 키워 줄 교육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성추행 II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쉽게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도망간다거나(21.4%) 보다 적극적인 형태인 그만둘 것을 얘기하는(20.4%)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으나, 저항하는 경우(8.3%)가 매우 적고 부정적인 느낌을 참으면서 그만두기를 바라기만 하는 경우가 26.7%나 되어 여전히 교사의 성폭력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성추행의 심각성 정도별 대응방식 (성추행 I의 경우)

성추행 I에 있어서 빈번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피동적인 대응방식을 보이는가.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의 대응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에 의해 성희롱을 경험한 여학생들을 경험빈도와 종류에 기준하여 분류하고, 각 집단들의 대응방식 차이를 살펴 보았다.

집단의 구분은 성추행 I 유형에 속하는 6종류의 성폭력이 비슷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평가해서 한 유형을 한두번 경험한 것은 2점, 여러번 경험한 것은 4점을 배정하여 최소 2점에서 최고 24점까지 범주를 설정하고 구획하는 방식을 따랐다. 한 유형을 한두번 경험한 사람의 집단(2점, 집단 I), 한 유형을 여러번 경험 했거나 두 유형을 한두번씩 경험한 사람의 집단(4점, 집단 II), 한유형을 여러번 경험하고 다른 한 유형은 한두번 경험한 사람 세가지 유형을 한두번씩 경험한 사람 두가지 유형을 여러번 경험한 사람의 집단(6.8점, 집단 III), 다섯유형이상에서 한두번씩 경험한 사람 세가지 유형이상에서 여러번 경험하고 두가지 유형이상에서 한두번씩 경험한 사람 그 이상의 경험을 한 사람 집단(10점 이상, 집단 IV)으로 분류하였다. 즉, 집단 I은 어쩌다 경험한 사람, 집단 II는 조금 경험한 사람, 집단 III은 많이 경험한 사람, 집단 IV는 매우 많이 경험한 사람 집단으로, 성추행 I 유형의 심각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성추행 I에 있어서 경험의 심각성에 따른 대응방식 차이 단위:명(%)

대응 방식 \ 점수	집단I	집단II	집단III	집단IV
말 못하고 싫은 표정	175(58.3)	124(59.3)	102(58.3)	35(58.1)
몸을 뿌리침	90(30.0)	54(25.8)	48(27.4)	20(29.9)
도망감	10(3.3)	6(2.9)	7(4.0)	5(7.5)
그만 둘 것을 얘기	8(2.7)	5(2.4)	6(3.4)	4(6.0)
무반응	17(5.7)	20(9.6)	12(6.9)	3(4.5)
계	300(100.0)	209(100.0)	175(100.0)	67(100.0)

d.f. = 12 p = .60232

〈표 7〉에 의하면, 성추행 I을 가장 심하게 경험한 집단 IV는 에서 가장 피동적인 대응인 아무말 못하고 싫은 표정 짓는 방식이 가장 낮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58.1%), 가장 적극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는 중단할 것을 얘기하는 비율은 가장 높 이 나타나(5.1%) 경미한 방식이라도 성추행을 많이 당할 경우 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집단간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따라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여러차례 경험한다고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식 을 구상해내지는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지속적인 피 해 경험 과정 속에서 무력화될 개연성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성폭력이 순환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아무리 경미한 경험이라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 요성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4) 심리적 상처

성폭력에 의한 신체적·심리적 상처는 매우 장기적이고 그 후 유증이 심하다. 여기에서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여학생들에 게 어떤 심리적 상처와 행동 장애를 유발하는가를 알아 본다. 〈표 8〉에 의하면 성추행 I을 당한 여학생보다는 성추행 II를 경험한 여학생에 있어서 훨씬 정신적 상처가 깊이 각인되었을 을 볼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고 나아가 서는 학교를 다니기 싫은 상태까지 된다. 더군다나 성추행 I의 경우에도 자신을 불결하게 생각하거나(9.0%) 타인 관계까지

기피되는(7.1%) 악영향이 미쳐져 이 유형을 사소한 일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임을 중요하게 짚을 수 있다. 성추행 II의 유형에서는 이런 모든 폐해가 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더군다나 죽고 싶은 충동(11.0%)까지 느끼고, 추가 응답에 의 하면 교사를 죽이고 싶었다는 사례도 있어 그 심각성을 볼 수 있다.

〈표 8〉 성추행 유형별 심리적 상처 단위 : 명 (%)

유형	수업 흥미 잃음	학교 다니기 싫음	자신을 불결하게 생각	타인관계의 기피	죽고 싶은 충동	아무렇지 않음
성추행 I						
상처입음	542(37.0)	185(12.6)	133(9.0)	104(7.1)	---	267(18.2)
전체	1,466(100.0)	1,470(100.0)	1,472(100.0)	1,474(100.0)	---	1,470(100.0)
성추행 II						
상처입음	108(45.8)	80(33.8)	43(18.1)	42(17.7)	26(11.0)	---
전체	236(100.0)	237(100.0)	237(100.0)	237(100.0)	237(100.0)	---

*중복 응답임

*--- 표시는 해당 설문 문항이 없는 것임

한편, 성추행 I의 경우 심리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응 답이 비교적 높게 나와(18.0%) 앞의 즉각적인 대응방식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와 학교 내에 성폭력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는 자칫 잘못 해석하면 여학생들이 남자 교사에게 더 적극적인 성적 행동 방식을 표출한다는 일부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료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몇 응답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보다는 '그 정도의 일은 아무일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쪽의 태 도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그러한 성추행이 정말 아무런 일이 아닌게 아니라 너무도 만연 한 성추행 문화에 의해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설 혹 여학생들이 남자 교사에 대해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로서의 사랑은 이같은 언어와 신체적 접촉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어린 학생에 대한 이같은 행위는 성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 양쪽 모두에게 성폭력이 무엇인가 에 대한 바른 인식전환의 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III. 교사의 성폭력에 대한 학생의 태도

이상에서 우리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몇가지 성폭력 유형의 실태를 살펴 보았다. 그러한 행위유형들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며 피해 여학생들이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았다.

1) 성적행위에 대한 느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성추행과 교사가 행하는 성추행에서 후자의 경우 그 의미를 완화시키는 경향을 자주 접한다. 여기에서는 교사의 성추행에 대한 느낌을 살펴 보았는데,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쪽에서 사소하게 보는 행위들이 피해 여학생들에게는 매우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0〉 교사의 성적행위에 대한 느낌

단위 : 명(%)

설문내용	신경쓸일 아니다	불쾌하다	소름끼친다	전 체
선생님이 브래지어끈을 잡아당긴다	30(1.3)	1,230(53.3)	1,046(45.4)	2,306(100.0)
선생님이 젖가슴 옆 겨드랑이를 만진다	21(0.9)	792(34.5)	1,482(64.6)	2,295(100.0)
선생님이 엉덩이나 젖가슴에 대해 말하면서 막대기로 찌른다	20(0.9)	994(43.3)	1,284(55.9)	2,298(100.0)
선생님이 등이나 엉덩이를 만지작거리다	32(1.4)	897(39.0)	1,373(59.6)	2,302(100.0)
선생님이 몸을 밀착시키며 가르친다	72(3.1)	1,008(44.0)	1,211(52.9)	2,291(100.0)
선생님이 옷 속의 내몸을 만지거나 자기를 만지게한다	19(0.8)	552(24.1)	1,718(75.1)	2,289(100.0)
선생님이 나를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한다	19(0.8)	626(27.3)	1,648(71.9)	2,293(100.0)

'소름끼친다'만 중심으로 보면 교사가 등이나 엉덩이 만지거

나 찌르는 것, 몸을 밀착시키며 가르치는 것, 브래지어 끈을 잡아 당기는 것 등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덜 소름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그렇게 소름끼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어 불쾌감을 많이 주는 느낌을 같이 포함시키면 앞의 차이는 상쇄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편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극단적으로 소름끼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음은 교사의 위치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우리의 학교생활 내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행해지는 행위들이므로 보다 민감하게 받아 들이지 않게 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교사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소름끼치는 일이며, 이 여학생들도 학교를 떠난 후 되돌아 볼 때 그같은 느낌을 충분히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친밀감, 애정, 존경, 권위의 위치에 있는 교사가 충분히 자신의 행위를 관리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미리부터 성교육이 제대로 행해져야 함을 암시받는다.

성추행 I유형에서는 젖가슴 옆 겨드랑이를 만지거나 (64.6%) 등이나 엉덩이를 만지작 거리는 행위(59.6%) 등 직접적인 접촉행위가 소름끼칠 정도의 느낌을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추행 II 유형의 옷 속으로 몸을 만지거나 (75.1%)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 하는 것(71.9)은 훨씬 더 소름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위와 같은 성적 행위들은 단지 감정적으로만 불쾌감과 소름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성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행위들에 대해 성폭력으로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표 11> 성적행위 유형별 성폭력 인지도

단위 : 명(%)

설문내용	성폭력이다	성폭력으로 볼 수도 있다	성폭력이 아니다	전체
1)전철안에서 어떤남자가 내게 몸을 비비거나 만진다.	1,450(61.3)	860(36.4)	55(2.3)	2,365(100.0)
2)낯선 사람이 PC통신으로 음란물을 보낸다	547(23.1)	1,463(61.8)	357(15.1)	2,367(100.0)
3)선생님이 브래지어끈을 잡아당긴다	1,564(66.1)	746(31.5)	55(2.3)	2,365(100.0)
4)선생님이 젖가슴 옆 겨드랑이를 은근히 만진다	1,969(83.3)	371(15.7)	24(1.5)	2,364(100.0)
5)선생님이 엉덩이나 젖가슴에 대해 말하면서 막대기로 찌른다	1,879(79.4)	462(19.5)	25(1.1)	2,366(100.0)
6)선생님이 등이나 엉덩이를 만지작거리다	1,780(75.2)	552(23.3)	34(1.4)	2,366(100.0)
7)선생님이 몸을 밀착시키며 가르친다	1,292(54.8)	969(41.1)	96(4.1)	2,357(100.0)
8)선생님이 옷 속의 내물을 만지거나 자기를 만지게한다	2,206(93.3)	143(6.0)	15(0.6)	2,364(100.0)
9)선생님이 나를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한다	2,182(92.1)	164(6.9)	22(0.9)	2,368(100.0)
10)선생님이 성관계를 요구한다	2,155(91.2)	187(7.9)	21(0.9)	2,363(100.0)

먼저 일반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성추행에 대해서 보면, 전철 안에서 낯선 남자가 내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59.7%가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5.4%가 성폭력으로 볼 수도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통신상의 음란물을 보내는 것은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보다는(22.5%) 성폭력으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이(60.2%) 우세하게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에 있어 앞에서는 단지 불쾌감만을 가졌던 상황 및 행위들에 대해 성폭력으로 보는 비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몸을 밀착시키며 가르치는 것은 54.8%, 브래지어 끈 잡아 당기기는 66.1%, 등이나 엉덩이 만지는 것은 75.2%, 엉덩이나 가슴 찌르는 것은 79.4%, 젖가슴 옆 만지기는 83.3%, 그 이상의 심한 성추행은 90%가 넘게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교사의 사소한 성적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최근 들어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사회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가면서 성폭력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두가지 태도를 놓고 볼 때 어느 선상까지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 마련이 아직은 주체적으로 정립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가장 중요하게는 피해자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 부정적인 압박감을 느낄 경우 모두 성폭력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나 성장 발달단계에 놓여 있는 청소년이 그러한 의식이 미쳐 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의도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예로 들고 있는 교사에 의한 성적 행위들은 제자에 대한 애정 행위는 아니며 더더군다나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선생님이 몸을 밀착시키며 가르치는 것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낮게 나오는 경향에 대해 우리는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3)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

연구보고들에 의하면 여성들의 경우 일반 다른 범죄들보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훨씬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한다.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행동과 일상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의 실제적 경험과 상관없이 일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불안감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가.

본 조사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중고 여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팽배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몇가지 상황 조건을 제시하고 성폭력 불안을 어느 정도 느끼는가를 질문하였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낯선 남자와 부딪히는 것이 여학생들에게 심한 성폭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줄까.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아는 남자와의 만남에서도 많은 여학생들이 성폭력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 아는 아저씨와 둘이 있을 때나 혼자 있는 집에 동네 아저씨가 방문했을 때 각각 50.5%, 60.0%의 여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일상 생활에서 여학생들이

느끼는 성폭력의 불안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성폭력의 가해자가 주로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사결과 등과 연계시켜 볼 때 성폭력의 불안감이 지역 공동체내에서도 파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교사에 대한 성폭력 불안감도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실에 남자 선생님과 둘만 있을 때는 9.9%가 많이 불안하다고 응답하였고, 27.4%가 조금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37.3%의 응답자가 교사에 대한 성폭력 불안감을 표시했다. 친밀성과 존경으로 상징되는 선생으로부터 학생이 성폭력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역시 교육 현실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다.

〈표 14〉 상황별 성폭력 불안감

단위:명(%)

설문내용	많이불안하다	조금불안하다	소 계
엘리베이터 안에 아는 아저씨와 둘이 있을 때	353(14.3)	892(36.2)	1,245(50.5)
혼자 있는 집에 동네아저씨가 방문했을 때	470(19.1)	1,008(40.9)	1,478(60.0)
교실에 남자 선생님과 둘만 있을 때	245(9.9)	676(27.4)	921(37.3)

IV. 교사 성폭력에의 대응방식

지속되는 성폭력 과정 속에서 피해 여아들이 겪는 심리적·신체적 손상은 매우 크다. 학교가기를 싫어하고, 우울증에 빠지며, 선생님과 같은 연령의 남자어른을 거부하여 심지어는 아버지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는 자살을 기도한 사례도 있다. 교사의 성폭력 사실은 여아들이 의도적으로 폭로하기 보다는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아이의 이상한 행동에 부모가 의구심을 갖게 됨으로써 뒤늦게 인지되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실제로 고1 여학생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후에 부모가 여학생의 일기장에서 우울증이 성추행의 후유증임을 발견한 사례, 유치원 원장의 성추행으로 유아가 계속 악몽을 꾸면서 이상행동을 보여 학부모가 인지한 사례, 초등학교 6

학년 담임이 편부모 자녀만 골라 성추행과 강간을 하여 한 아이가 자살을 시도하여 인지하게 된 사례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부모에 의해서 교사의 성폭력 사실이 인지되더라도 사후처리단계에서는 학생과 부모, 교사, 학교당국(학교장), 교육제도권(교육청), 지역사회 등 각기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사건이 무마되기도 하고, 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원 성폭력의 사후처리는 교사라는 신분을 보호하고, 교육제도의 명예를 수호한다는 외피 속에 성폭력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태도들을 발표와 보도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자.

부모의 태도 : 아이의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해가 될까봐 은폐하고 있다가 다른 아이의 부모가 들고 일어나면서 교사의 파면을 요구한 사례, 언론에 먼저 노출되었으나 부모들이 밝히기를 꺼려해 무마된 사례, 아이의 성추행 피해를 알게 되자 주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전학시킨 사례 등 소극적인 태도가 많으나, 반면에 즉각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사례나 경찰에 직접 고소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는 순결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있고 공식영역에서의 권력 마찰에 대해 조직적인 힘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시킨다. 그러나 이에 대한 힘을 조직화 할 수 있는 역할은 부모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교사(교장·교감이 당사자인 경우 포함)의 태도 : 성추행이 아니라 아이를 예뻐한 애정 표현이며 교육과정의 일부라고 변명한 사례,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합의를 유도한 사례, 강간을 시인하고 처벌을 수용하는 등 다양한 태도를 보인다. 대부분은 교사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 시인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당국(장)의 태도 : 학교장의 책임 추궁에 대한 회피 및 사건무마를 위해 노력하거나, 교사의 장기간 교육투신 경력에 대해 보호해 주려는 사례, 혹은 교사를 징계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학교는 사건이 얼마만큼 여론화 되는가에 많이 좌우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교육제도의 태도 : 학교에 실사를 나와서 교사가 애정 표현

한 것을 성추행으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사건 무마를 유도(신양중학교)하거나, 단순한 전근조치하는 태도, 그리고 형사상 범죄구성요건이 되어야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태도, 혹은 교사를 징계하는 태도 등이 나타났다. 교육제도에서는 교권을 지킨다는 명목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사회의 태도 : 성추행 당한 유아들에 대해 수근거리거나(우성유치원), 교장의 성추행을 비호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비난하고 데모하는 경우(신양중학교)도 있었다. 반면에 피해자 편에서 법적 처리를 도와 줄 변호사나 도움을 줄 사람을 물색해 주거나(청주 을량초등학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책위원회를 통해 학원 성폭력 추방운동 펼친 사례도 있었다. 부모와 함께 대응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동반자적 혹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는 곳이 지역 공동체임을 생각할 때 지역의 의식화 및 연계망 확충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조사에서는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사후에 어떤 대응을 하는가를 이들의 지지망으로 볼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상의하였으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후 대처에 있어서 지지망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식을 강화시킬 수 있고 한편으로는 예방기능을 할 수 있는 성폭력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지지망과의 연계

① 유형별 상의대상

교사에 의한 성폭력의 심층사례들에서 보면 성폭력의 지속성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에의 비노출에 의한다. 본 조사에서도 성추행 I의 경우에는 응답대상자의 49.5%인 603명이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으며, 성추행 II의 경우에도 35.0%인 82명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사람하고 상의한 경우에도 주로 친구에게만 하소연 혹은 그냥 얘기하는 정도에 그쳐서(성추행

I의 경우 45.6%, 성추행 II의 경우 53.0%)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은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성추행 I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상의하는 대상은 부모님, 선생님, 선배, 상담소의 순서이다. 성추행 II의 경우 학교 선생님과 가장 많이 상의 하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 상담소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5> 성폭력 유형별 상의대상 단위:명(%)

유형	부모님	선생님	선배	상담소	친구	없음	전체
성추행I	29(2.4)	12(1.0)	11(0.9)	7(0.6)	555(45.6)	603(49.5)	1,217(100.0)
성추행II	13(5.6)	11(4.7)	0(0.0)	4(1.7)	124(53.0)	82(35.0)	234(100.0)

② 성추행 I의 심각성 정도별 상의대상

성추행 I의 심각성 정도별로 분류한 네 집단별로 누구와 더 많이 상의하는지 살펴 보았다. <표 16>에서 보여지듯이 심각하게 성추행을 경험할수록 누군가와 더 많이 상의하며, 특히 두드러진 것은 부모님, 선생님,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상담소에 상의를 의뢰하는 비율이 조금 늘어난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친구와 상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생들과 연계될 수 있는 공동체적 연결망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표 16> 성추행 I 유형의 심각성 정도별 상의대상 단위:명(%)

상의 대상 \ 심각성 정도	집단I	집단II	집단III	집단IV
부모	11(3.6)	3(1.4)	5(2.8)	3(4.1)
선생	5(1.6)	0(0.0)	1(0.6)	3(4.1)
선배	2(0.7)	3(1.4)	2(1.1)	1(1.4)
상담소	1(0.3)	1(0.5)	0(0.0)	1(1.4)
친구	137(44.9)	98(46.2)	113(62.8)	46(62.2)
없다	149(48.9)	107(50.5)	59(32.8)	20(27.0)
전체	305(100.0)	212(100.0)	180(100.0)	74(100.0)

d.f. = 15 p<0.001

③ 성추행 I의 대응 유형에 따른 상의대상

성추행 I의 경우 자신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은 있으나 일관된 경향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만할 것을 얘기하거나 도망가기 등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 부모에게 상의하는 비율이 높고, 대신 선생님에게 상의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친구에게 이야기거리로 하는 것 같고 역시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서 자신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에도 선생님에 대해서는 상의가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성추행 I에 대한 교사의 반응이 적절치 못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8> 대응유형에 따른 상의 대상 단위 : 명(%)

상의 대응 대상 유형	아무말 못하고 싶은 표정	몸을 돌리거나 빼기	도망감	그만하라고 말함	무반응
부모	14(1.9)	9(2.8)	4(4.6)	2(5.0)	1(1.3)
선생	12(1.6)	0(0.0)	1(1.1)	0(0.0)	0(0.0)
선배	5(0.7)	1(0.3)	1(1.1)	0(0.0)	2(2.7)
상담소	3(0.4)	1(0.3)	1(1.1)	0(0.0)	1(1.3)
친구	332(45.5)	174(53.7)	32(36.8)	18(45.0)	18(24.0)
없다	363(49.8)	139(42.9)	48(55.2)	20(50.0)	53(70.7)
전체	729(100.0)	324(25.8)	87(6.9)	40(3.2)	75(6.0)

d.f. = 20 p < 0.001

④ 유형별 상의내용

성추행 I을 경험하건 심각한 성추행을 경험하건 피해 경험을 상의한 대상은 거의 무대책으로 함께 선생님 욕만 하며 선생님의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정도로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9>에서는 성추행 I의 경우 78.8%인 484명이, 성추행의 경우 70.7%인 105명이 선생님 욕만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욕하고 꾸짖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마도 상의대상이 친구와 같은 동료 또래 집단이기 때문으로 생각되

며, 이들은 제도권 교육 내에서 교사에게 통제받을 수 밖에 없는 학생의 위치 때문으로 보인다. 성추행 I에 있어서는 상의대상이 별일 아닌 것으로 간주하려는 비율이 높고 선생님의 관심으로 돌리려는 왜곡된 경향도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도 3.1%에 이른다.

성추행 II의 경우 별일 아니니 잊도록 하거나 선생님의 관심인 것으로 돌리는 경향이 짙는데 다른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겪을 수도 있는 심리적 상처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양 유형 모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반응은 매우 약해 각각 6.5%, 10.7%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성폭력이 치외법권지임을 확인케 한다.

<표 19> 성폭력 유형별 상의내용 단위:명(%)

유형	별일아니니 잊어라	선생님의 관심이다	분하지만 참아라	선생님 욕만함	나나 친구에게 문제 있다	대응책 강구	전체
성추행 I	29(4.7)	21(3.4)	21(3.4)	484(78.8)	19(3.1)	40(6.5)	614(100.0)
성추행 II	19(12.7)	8 (5.3)		105(70.7)	2 (1.3)	16(10.7)	150(100.0)

*공란은 해당 설문문항이 없는 것임

⑤ 상의대상에 따른 상의내용

상의 내용에 있어서 선생님에 대한 욕만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상의 대상이 친구 혹은 선배일 경우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경우에도 단순히 욕만 하는 비율이 의외로 높다. 여기에서 특히 지적해 볼 것은 부모님, 선생님, 상담소와의 상의내용이다.

<표 20> 대상에 따른 상의내용

단위 : 명(%)

유형 내용	부모님		선생님		선 배		상담소		친 구	
	성희롱	성추행	성희롱	성추행	성희롱	성추행	성희롱	성추행	성희롱	성추행
별일아 니니	3(12.0)	2(16.7)	8(66.7)	3(33.3)	0(0.0)	0(0.0)	0(0.0)	1(33.3)	17(3.3)	10(8.8)
잊어라 선생님 관심	2(8.0)	0(0.0)	1(8.3)	0(0.0)	0(0.0)	0(0.0)	0(0.0)	0(0.0)	13(2.5)	8(7.1)
본인이 조심했 어야	1(4.0)	0(0.0)	1(8.3)	0(0.0)	1(16.1)	0(0.0)	0(0.0)	0(0.0)	10(1.9)	1(0.9)
선생님 욕만함	10(40.0)	8(66.7)	1(8.3)	2(22.2)	5(83.3)	0(0.0)	1(20.0)	1(33.3)	443(85.0)	88(77.9)
참아라	2(8.0)		0(0.0)		0(0.0)		2(40.0)		17(3.3)	
대응책 마련권 고	7(28.0)	2(16.7)	1(8.3)	4(44.4)	0(0.0)	0(0.0)	2(40.0)	1(33.3)	21(4.0)	6(5.3)
계	25(100)	12(100)	12(100)	9(100)	6(100.0)	0(0.0)	5(100)	3(100)	521(100.0)	113(100)

*공란은 설문문항이 없는 것임

선생님의 경우 성추행 I 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상의해 주거나 (66.7%) 선생님의 관심이라고 말해(8.3%) 경미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로 넘기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같은 동료 교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학교에서의 성폭력 I 유형에 대한 심각성에 둔감하고 의식없는 교사들의 이러한 대응태도는 학교내 교사의 성폭력이 은폐·지속되는데 매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조력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책 마련에 미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큰 문제로 여겨진다. 대신 성추행 II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해 보자고 하는 비율(44.4%)은 타 상담자에 비하면 높으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매우 낮은 비율이다.

부모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추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하한 이해관계에 걸려 있지 않고 자신이나 자녀의 경험에 입각해 문제를 파악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역 상담소의 경우에는 비교적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상의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학교내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사는, 동료 교사에 대한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인권도 역시 보호받아야 할 때 학생의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부모의 경우 개별적인 차원에서 문제 인식이 확실한 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인 차원에서만 해소하려는 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학교 성폭력의 예방에 충분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상담소는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각을 고정화 시킬 수 있으며 지역과 조직의 자원동원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 학생, 부모와의 연계망 구축에 보다 힘을 기울일 때 지역사회와 학교 성폭력 예방에 큰 추진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와 상의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제자, 학생이라는 한계 속에서 개별화된 하소연과 푸념에 그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학교내의 다른 친구들과 보다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에 대처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각각의 잠재능력을 가지고 성폭력을 예방,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성교육 실태

이상 교육제도내에서 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학생 성폭력의 실태를 살펴 보았다. 교사에 의한 성폭력(물론 다른 사람에 의한 성폭력도 포함해서)을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조차도 경험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교육 초기 단계부터 성폭력 예방 등 성교육이 실행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에서는 학교에서의 성폭력 교육이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표 21〉 학교에서의 성폭력 교육 빈도 단위:명(%)

교육받은시기	빈도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176	전체 1,269
초등학교	없음	565(48.0)	826(65.1)
	1회	219(18.6)	170(13.4)
	2-3회	203(17.3)	103(8.1)
	4회 이상	189(16.1)	170(13.4)
중학교	없음	528(44.9)	545(42.9)
	1회	225(19.1)	288(22.7)
	2-3회	212(18.0)	248(19.5)
	4회이상	211(17.9)	188(14.8)
고등학교	없음		601(47.4)
	1회		331(26.1)
	2-3회		145(11.4)
	4회이상		192(15.1)

먼저, 전체적으로 빈도면에서 볼 때 현재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중학생이 중학교에서 현재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며(54%), 했더라도 1회에 그친 것이 20%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이 더욱 더 행해지고 있지 않아 52.6%의 학생들만이 성폭력 교육을 받았고, 그나마 1회성이 26.1%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고교생들보다는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성폭력 교육을 받은 경험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중학교에서 성폭력 교육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교육의 시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교육이 어느 교육 시기라도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질적으로 높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학교에서의 성폭력 교육이 절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질적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성폭력 교육이 행해지는가를 질문해 보았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수업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973명, 45.27%)가 가장 많았으며 시간을 정해서 상세히 교육한다고 응답한 사례는 384명으로 17.8%에 불과하였다. 가정통신문으로 대신하고 있음도 234명으로 10.9%를 차지하였으며, 아무것도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564명으로 26.2%에 달했다.

이상을 요약해 볼 때 학교에서 성폭력 교육을 받는 여학생은 절반을 간신히 상회하며, 교육을 받더라도 주로 1회 정도의 기회에 불과하며, 그나마 수업시간에 조금씩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성폭력 문제에 비추어 볼 때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학교 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성폭력 또한 만연하게 만드는 풍토를 스스로 조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학원 성폭력의 성격과 대책

1) 학원 성폭력의 성격과 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학원 성폭력의 성격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겠다.

첫째, 학원 성폭력을 권력관계적 시각에서 볼 때 학원 성폭력의 성격이 보다 극명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살펴 보았듯이 교사의 학생 성폭력은 교사(교장)-학생-학부모-학교당국(장)-지역사회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형성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간에 형성되는 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남자 성인과 여자 어린이(청소년, 유아 포함)라는 성별과 연령관계, 그리고 사제관계간의 규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장유유서(長幼有序)가 준수되는 우리 사회에서윗사람에게 복종해야 하는 학생 위치와, 여아이기 때문에 남자의 성적 대상이 되는 이중적인 지위에 놓이게 하는 연령과 성별의 권력관계는 교사의 요구에 거부할 수 없는 여학생의 한계를 구획하며,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여기에 덧붙여 사제관계는 인격적 교류를 전제로 하는 친밀성, 학생이 교사로부터 감독·통제를 받는 위계성, 교육체계내에 포섭되어 있는 동안에는 변동되지 않는 관계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연령과 성별의 권력관계를 강화한다. 이러한 특성은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학생 통제 권력은 성폭력의 유인단계, 발생단계, 폭로단계에서 각각 작용하여

성폭력이 지속되게 한다.

다음으로 학부모(학생)와 교사(교장), 학교당국, 교육제도권, 지역사회 간의 권력관계를 볼 수 있다. 일단 성폭력 사실이 인지되더라도 아이와 교사간의 권력관계는 그대로 학부모와의 관계를 규정하므로 학부모는 성폭력 피해를 쉽게 표면화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성폭력이 내포하는 성별 권력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자칫 딸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공개될 경우 딸이 입을 피해도 고려된다. 학부모가 딸의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처리를 요구할 때 학부모는 학교당국을 위시한 교육제도권,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합된 권력과 부딪히게 된다. 지역사회에 있어서 교사 특히 교감, 교장의 위치는 유지급이며 제도권 교육체계 내에서의 위상도 이에 못지 않다.

이같이 구축해 온 권력은 성폭력을 한 때의 경미한 실수로 삼거나 혹은 성폭력이 아닌 다른 문제로 전화시키기도 하며⁴⁾,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끔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평교사일 경우에도 학교당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사례에 의하면 학교장의 문책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연합권력이 형성될 수 있다. 그 결과 성폭력 가해 교사가 전근된다거나 사직을 하게 하는 등의 단순처리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다시금 복직시키는 등 교권의 보호를 피해학생의 인권에 우선하고 있는 것을 보게되기도 한다. 결국 학생이 성폭력을 당하는 시작부터 그 사후처리까지 권력관계가 관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비교육성의 문제가 학원 성폭력을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다. 학원 성폭력은 종종 교육의 한 방식으로, 교사의 애정표현의 한 방식으로 간주되곤 한다. 훈육의 한 방식으로 여학생의 가슴을 주르르거나 브래지어 끈을 잡아 당기고 예절교육과 성교육 과정에 성추행을 실습하며, 신체검사나 용모검사를 구실로 여학생의 옷 속을 더듬으면서도 그것이 교육임을 내세운다. 방과 후에 남도록 하여 몸을 만지고, 지나치다가 혹은 청소하는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면서 교사의 애정표현임을 강조한다.

4)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에 교사들이 동조할 경우 교장의 성폭력 문제를 학교와 교사간의 갈등으로 와전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 당사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교육방식이며 애정표현이다. 피해 여아들은 이같은 교사의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단지 교사와의 권력관계 때문에 그저 감수하고 있을 뿐이다.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성폭력이 아닌 교육과 교사의 애정표현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애정을 가지고 학생을 만지는 행위는 신체의 성적 부위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격려와 애정을 가지고 제자의 몸을 다독거릴 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신체부위를 결코 건드리지는 않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교육적 훈육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소시의 성과를 얻을 수 없으며, 학생들의 훈육은 다만 진정한 교사의 충고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성폭력을 교육과 애정표현으로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교육정신이 빠진 비교육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원 성폭력은 다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폐해를 모두 담고 있다. 더우기 어린 성장기에 경험하는 성폭력은 일생을 두고 심리적 장애를 겪게 하며, 대인관계 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뜨리며,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다. 그 외에 학원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성적 불평등 권력관계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함을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다.

성적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문화규범의 개선은 주로 교육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성평등적 교육을 통한 사회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미래에 성평등적 사회를 지향할 토대를 쌓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원 성폭력은 성적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제도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여학생은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며, 발생에서부터 사후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가해자가 두둔되는 과정을 통해 여학생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사회화하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강제에 대해 정면대항의 태도를 길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훈련을 일찌기부터 포기하게 되는 법을 배울 뿐인 것이다.

2) 대책을 위한 제언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폭력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증가추세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사회차원의 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는 사회 전반적인 도덕성 회복과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인권존중의 풍토를 마련하는 사회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심영희, 1996). 또한 사회 곳곳의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환경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겠다. 성폭력특별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집행되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예방이 이뤄져야겠다.

학원성폭력의 대책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따로 몇가지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현직 평교사들 뿐 아니라 행정직 교사의 복무규정에 교사들의 성평등적 시각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 고취가 포함되어야 하며, 인식 전환을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및 교직 이수과정에 여성학과 성교육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의무화되어야 하며, 교사 연수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교육이 유치원부터 시행되도록 교과과정에 의무규정을 두어야 하고 이는 점수화하지 않는 과목으로 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성평등적인 관점을 익힘으로써 성폭력이 무엇이고 성폭력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유아 때부터 숙지시켜 어떠한 형태의 성폭력 피해라도 은폐되지 않게 함으로써 심각한 사태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셋째,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교사들에 의해 묵인되고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학교 교사

나 의사, 상담소의 전문가들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기관장의 입장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관장의 의무는 특별히 명시해 신고의무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넷째, 성폭력 가해 교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직에 계속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 강경대책이 교육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제도권에서부터 교사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교사 뿐 아니라 교육계에 종사하는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성폭력의 예방, 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연계망 구축이 요청된다. 학생자치회, 평교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사회의 성폭력 상담소와 연대체계를 구축하여 이들로하여금 학교내 성폭력에 대한 감시예방, 발생의 신고 및 체계적인 처리과정에 개입하게 한다.

〈참 고 자 료〉

- 청주여성의전화 학원성폭력 대책자료
신양중학교 공동대책위원회 경과보고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터」, 1996, 8
한겨레, 1996년 7월16일
내일신문, 1996년 7월10일, 17일
동아일보, 1996년 7월12일
시민의신문, 1996년 7월15일
충청매일, 1996년 7월22일
충청일보 1996년 7월19일
중부매일신문, 1996년 7월20일
-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 청소년 폭력 및 청소년 폭력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
심영희, 1996, "어린이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 : 사회문화적 차원".
서울특별시 주최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세미나 자료집.

대학에서의 성희롱 문제와 이에 대한 접근

이혜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원)

대학에서의 성희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추세다. 대학 내에서의 성희롱 문제는 학생간, 학생과 교직원간, 교직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성희롱 문제는 대학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성희롱이라는 것이 대학과 같은 제도적 구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 권력과 구조에 의한 성희롱의 심각성은 사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성희롱이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점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지나치게 막연한 인권의 보호는 사실상 너무나도 접근해 가기 어렵다. 그러나 성희롱이란 영역을 설정하고 들어갈 경우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상의 문제는 그렇게 막연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성희롱 문제에 보다 큰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성희롱의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 개인과 문화의 문제, 개인과 사회구조의 문제가 개개인에게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서는 대학이라는 하나의 사회구조적 문제가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본다. 그러한 본인은 성희롱이라는 것이 다만 문화, 제도화된 틀이 개인적인 성향과 맞물리면서 동시에 한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학에서 교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학생과 같이 채집이나 답사를 갈 수 있다. 그것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학과 과정에 필요한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 발생 요인이 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은 교수의 제의에 거의 일방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암묵적 권한이 교수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 자체가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개인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상황적 요소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 교수의 언행이 성적으로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 당하는 일이 생겨도 학생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 인내하게 된다. 그것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순응을 학습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불쾌하며, 원치 않는 언어적 성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대응과 반응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개인은 개개인의 자라온 배경이나 문화적 영향과 사회적 학습에 의해 많은 개인차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개인차는 같은 정도의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문제해결 양식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더군다나 사회에서 인정하는 대학이라는 이미지와 대학교수에 대한 이미지는 실로 현실세계와는 다른 것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예 ;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다) 그러한 사회에서 몸담고 있는 대학교수의 권위는 실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은 학생들에게 거의 무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해도 그리 무리있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토록 교수의 권한은 압도적인 것이고 그 같은 이미지와 상황에서 반대 의사를 표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더더군다나 4년만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할 학생의 경우는 어찌보면 대학의 구조적인 측면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같은 학문을 하기 위해 계속 학교를 다니며, 같은 교수를 장기간 접촉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면 그때는 실로 개인의 일생이 걸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교수라는 직업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평생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일반 사회의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도 더욱 더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학문이라는 분야는 오랜 시일을 통해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특정 조직(대학)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탈퇴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학이라는 사회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한의 요소가 구석구석 개입될 수 있다.

그러나 성희롱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는 간단히 쥐 준 돈을 갚는 행위와 같이 단순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입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지속적이고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사회 문화적으로 성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현실에서는 그 고리가, 연속적으로 맞물리면서 개인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연속선상의 고리에 의해 개인에게 특히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부당한 사회적 대우와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저해시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성희롱의 문제는 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문제 해결의 차원보다는 근본적인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학이라는 사회에서 부여해 준 이미지는 보다 쉽게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기에 적절하다. 성희롱 문제는 대학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모델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은 모든 교육기관 뿐 아니라 사회의 일반 기업체에도 제시할 수 있는 성희롱 방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그와 같은 노력은 대학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대학은 그러한 노력을 통해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대학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한 대학 풍토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해서도 그와 같은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도 하나의 여러 직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커다란 조직이기 때문에 적절한 직업 윤리, 행동 강령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성희롱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폐해 정도에 개인차가 많이 개입되는 부분인만큼 최소한의 선과 최대한의 선을 정할 수 있는 능력과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대학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진리를 탐구하는 장이라는 사실은 인간을 보다 존엄한 객체로 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와 역사의 정신적 근간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대학 사회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당국은 성희롱 문제에 대해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적 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명시하여 이를 인식하도록 하며 학교 정책과 방침에 부응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대학이 처리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캠퍼스의 성희롱』이라는 책에서 주로 인용한 것이다.

1. 목적과 조직의 불명확성

대학의 근본목적은 가르치며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그 사명이 훨씬 애매해졌다.

교수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본질적인 역할 외에도 "가치"를 명확히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지혜"를 전수하고 "창조력"을 개발시키고 "성장"을 격려하는 역할도 해야한다. 학생들의 지적 성장 뿐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정신적 성장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한다. 이때 교수는 자신의 관심과 권위의 정당한 한계를 잃는 수가 있는 것이다. 교수의 직업적 영역이 학생의 사생활을 침범했을 경우는, 교수는 사실상 그 기본윤리를 저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이 옳바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교수들은 교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사실 그들은 특정 지식을 늘리는 것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교수법이나 학생들의 학문 외적인 문제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대학 교육의 비전인적 교육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교수와 학생간에 전인적인 교육환경과 이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제관계 정립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그들의 임무과 그 수행 방법에 대한 아무런 방향의 제시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학생 지도에 대한 진정한 동기를 혼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현실은 때에 따라서 문제시될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지도 교수이며 보호자라는 측면은 교수와 학생간의 모든 접촉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교수는 여학생을 가정 환경, 개인적 문제, 연애관계 및 성경험을 다루는 토론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와의 친밀한 대화나 육체적 접촉, 둘만의 만남의 배려를 자애로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물론 신체적인 접촉이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학 시기는 이미 성인의 시기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개인적인 접촉이 없이도 얼마든지 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수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 이상이다. 그러므로 교수의 접근을 거절하는 것은 동료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과는 문제가 다른 것이다. 학생으로서는 교수의 접근을 거절하는 것이 자신의 성장을 거절하는 것이며, 교수가 대표하는 지적 성숙을 거절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2. 전문직의 자율권

교수의 권한은 생각보다 더욱 강력하다. 강의에 있어 자치권과 자율조정권을 가지고 있다. 왜곡된 교육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출석, 공부, 학점부여에 있어 자기나름대로의 방침을 강요한다. 그는 담당과목의 내용, 해석 및 방법론에 있어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강의실에서 교수는 적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정당화가 가능할 수 있다.

대학원의 세미나는 학생으로 하여금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교수에게 허용한다. 강의 시간이나 세미나 시간에 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수들을 성희롱으로 항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3. 비율적인 학교 행정과 조직

중앙집권 거부반응을 보이는 행정조직이 단과대학 내에 있다. 그렇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통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들의 권력구조 또한 느슨하고 애매하며 그 한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의 체제가 보다 현실적인 체계로 보다 조직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각 영역에 대해 공인할 수 있는 영역과 권한의 구분을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허술하게 규정된 권력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중의 하나가 업무상의 마찰이다. 교수들은 학생과 동료, 학과장, 학장, 교무처장, 총장 등 여러 집단의 인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비단 직무상의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성희롱에 이르면 조직의 마비현상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장은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기도 하지만, 교수들 개개인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할 책임도 지니는 이중적 입장에 놓여있다. 따라서 성희롱과 같은 문제가 생길 때 언제든지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며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담 기관은 대학내에 상설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성희롱 문제 전담 기관은 그 하부에 진상조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하도록 한다.

4. 책임의 회피

대학당국이 성희롱 사태에 대해 능력 부족이라기 보다는 의지부족으로 보여진다. 책임 추궁이 지극히 간접적인 경로를 우회하게 되어 있으며, 항의절차도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권위과 책임을 부정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그편이 쉽기 때문이다. 학과장이나 학장 및 교육처장같은 인물들은 이와 같은 교수 고유영역을 침해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를 매우 조심하게 된다. 학생과 교수간의 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의 해결 방향과 결과는 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동료 교수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희롱의 문제는 하루 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수용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리를 다루는 대학은 반드시 진실한 것에 관심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5. 성희롱에 대한 관용

대학이란 사상의 전달, 진리의 추구, 지식 영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여기에서 누가 지식의 영역을 확대시킬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가능한한 교수 전체에 대해 광범위한 언행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교수들의 개성에 따른 독특한 행동에 대한 자율권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적이며 개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선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6. 학생들에 대한 태도

학생들에 대한 대학측의 태도는 성희롱 대응 방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일반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대학 내에서의 학생들의 목소리는 억압받고 분산되어 있다. 일반적인 인식은 극소수의 학생들로부터 나온 불만이 대다수의 의견인 양 오도되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다만 간헐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부정확하게 청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일하게 조직화되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학생들의 의사 표현 수단은 학생회와 학생 신문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이지 못하며, 전

체학생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시험스케줄이나 수업료 인상, 축제 등은 학생회의 인정된 자치권 내에 속해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교수의 행동이나 학생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교수들과는 달리 학생들은 대학당국에 대해 그들의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또한 조직내의 그들의 움직임은 과격하고 예측불가능하다.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그들은 새로운 환경을 찾아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그들 자신은 망각 속에 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존재의 위치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들과 대학의 조직 체계에서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많은 경우 학생들과 교수들은 학생들이란 대학 내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에 불과하고, 또한 명확하게 통일된 의사를 표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보다는 대학내에 장기간 있을 수 있는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성희롱에 대한 진정서에 접했을 때 대부분의 교수들이 보이는 반응에는 이러한 태도가 잠재하고 있다. - " 그래, xx교수가 그 학생에게 약간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시다. 하지만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소? 이 문제에는 그의 전 경력이 달려 있단 말이오. 그는 52살이예요. 그 학생은 이제 20살이구요. 그 학생은 1년만 지나면 모든걸 다 잊어버릴거요."

교수들은 학생들이 그들의 대학내에서의 위치를 벗어나 도덕적이며 법률적인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소비자로서의 대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7. '상아탑'으로서의 대학

대학은 지도자로서의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대중은 대학내의 모든 사람들은 개방적이며 자연스럽고 착하다고 생각하며, 각종 매체도 이러한 대학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희롱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어떠한 홍보기술을 가지고도 그것의 존재를 숨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대중은 성희롱 문제에 입각하여 대학이라는 기관에 심리적인 압력은 물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각 대학은 성희롱 문제가 대학내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는 한, 능동적으로 그 문제에 대처하거나, 아니면 재원과 등록율이 격감하고 있는 대학의 현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로서의 학생들은 보다 우수한 질적 환경 조건을 지닌 대학에 가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8. 학문적 보수주의

비록 문제가 고도의 심각성을 지닌 것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에게서 어떤 문제에 대한 민첩한 반응을 기대하기란 힘든 일이다. 그들이 받아들인 교육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특성이 끈기있는 분석과 연구의 장점을 존중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급격한 변화에는 불안정하다고 느끼기 쉽다. 따라서 좋은 변화란 가장 신중한 변화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은 사회에 문화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에서 인정하는 것은 그 사회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것에 대해 신중한 특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며, 그러한 측면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지나치게 신중한 측면의 체질과로 인한 과도한 검토와 시간의 투자는 성희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해결이 항상 바람직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체질화된 신중한 처사는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결정하는데만도 오랜 시일이 걸리며, 다양한 일정과 다른 행정적인 일들로 인해 회의가 지연되는 사태가 생기기 쉽다. 또한 행동 방침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희롱 문제의 특성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취해질수록 공정하고 명확한 문제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9. 남녀간의 불평등과 긴장

성희롱에 대한 대학의 반응을 결정짓는 마지막 요소이자 아마도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여자교수 인원의 절대적 수의 부족이다. 80-81(미국)년도 국립교육통계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대학교 수의 23.8%만이 여성이었으며, 이들 중 9.2%가 정교수, 19.7%가 부교수, 34.2%가 조교수, 그리고 나머지 53.3%가 전임강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이에 더욱 현저하게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여성학 전문 교수가 있는 대학은 손가락을 셀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수치 상의 비율이 대학내 모든 학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

다. 거의 한 명의 여교수도 재직하고 있지 않은 과들도 많은 것이다. 그리고 대개의 대학에 있어 여자 교수들은 간호학이나 교육학, 문학, 어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에서 고립된 존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교수들은 현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오는 고용 현실로 남자교수들에 비해 신분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여성들은 대부분 종신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내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권도 크게 제한 받고 있다. 보수도 남자들에 비해 불리하다(미국립 교육통계자료, 교수협회자료). 여성들은 보직에 자주 임용되지도 않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도 못하다. 보직에 임용된 여자 교수들은 남자 교수들에 비해 5-10% 정도로 수당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맡고 있는 보직 분야도 주로 상담자 같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임무라고 볼 수 있는 분야에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자 교수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성희롱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대학은 주로 남성들의 세계이며, 남성들은 보통 성희롱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희롱은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성희롱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를 대학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여성문제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 글을 마치며... >

우리는 대학내의 성희롱에 관해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집중시킨 경우보다 대학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무감각해진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법정에 제소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으로 오염되어 있어 분리시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개인이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과 관심은 성희롱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내에 떠도는 무수한 성희롱과 관련된 소문들을 이제는 과감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학 사회의 분위기를 지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최소한의 인간 존엄의 인정은 성희롱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모든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사에 의한 성폭력 : 교육적 문제와 대책

정해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I. 학교 성폭력의 실상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전화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 경험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큰 충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문제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교사 성폭력이 어느 정도 만연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지난 10년간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학생에 대한 「성폭행·추행 처벌 폭행」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90명으로, 이는 전교조활동과 관련하여 징계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의 2.6%에 달한다.⁵⁾ 그러나 이와 같은 숫자가 결코 적은 수치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단을 신성시하고 교사에게 학생의 인격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도덕성을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에 비추어 볼 때 교사와 교육계의 품위에 절대적인 손상을 입히는 학생 성폭력 문제로 징계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동안 은폐되고 가려져 있던 교사 성폭력의 문제가 이번 여성의 전화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교사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90년 이전(22명)보다 90년 이후(68명)에 3배나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교사에 의한 경우가 38명으로 중학교(25명)나 고등학교(24명)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초등학

5. 물론 이 항목이 성폭행·추행과 더불어 처벌 폭행까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 이 숫자 전부가 성폭력에 의한 교사 징계라고 보기 어려우나 교사 처벌을 사랑의 메로 간주하는 사회 인식을 감안해 볼 때, 상당수가 성폭력에 의한 징계로 보여진다.

교에서도 최소한 중·고등학교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발생율을 보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이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 사례들에 나타난 교사의 성폭력 행위를 보면 젓가슴 만지기, 입맞추기, 끌어안기, 음부만지기 등 성추행의 전형적인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에 나타난 학생들이 경험한 교사에 의한 성폭력에도 일부 학생의 경험이기는 하지만 교사가 학생의 옷 속을 더듬거나,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기는 물론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강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음담패설과 같은 성적 언어 사용에 의한 가벼운(?) 성희롱에서부터 신체 접촉, 밀착에 이르기까지 일반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폭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는 여성들이 초등학교시절부터 남성들에 의한 다양한 성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I. 학교 성폭력의 교육적 문제와 대책

그런데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은 일반 사회에서의 성폭력과는 또 다른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교사에 의해 행해졌다는 사실이다. 모든 교사가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자이기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윤리적 의식이나 규범을 갖출 때만이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가벼운 성희롱이라 하여도 교사가 여아나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교사의 품위유지나 도덕성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교육적 폐해는 교사가 갖고 있는 여성관으로 인하여 남성에 비해 열등한 성으로 여학생들을 규정함으로써 여학생들의 진로 포부를 약화시키고 전통적 성역할의식을 심어준다는 데 있다. 성희롱은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가부장적 성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사의 이러한 남녀역할관은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아동기, 청소년기에 성희롱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비록 강제로 끌어안거나 강간을 하는 등 심각한 성추행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담패설이나 브래지어 끌어당기기, 엉덩이 만지기 등은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한편,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업에 흥미를 잃거나 학교에 가기 싫다든가 하는 학업 기피 현상과 학습활동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교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교육적 행위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더욱 혼돈스럽고 무력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비록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할 지라도 어려서 부터 성희롱이나 추행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한 여아들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폭력에 무감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자아의식이 왜곡되게 된다.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희롱이나 폭력이 일상화된 환경은 여학생들에게 단순한 성적 모멸감을 주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간의 힘의 관계를 반영한 사회구조를 체득하게 한다는 점에 더 근본적인 심각성이 있다.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이처럼 여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성역할 문화를 체득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각급학교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단순히 성폭력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가장 시급한 것은 여학생들이 교사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이를 희롱으로 여기는 지를 교사들이 파악하는 일이다.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성에 대해 일찍 눈 뜬다는 사실은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한 교사들은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에 대해 학생들이 이를 성적 희롱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교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교사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학교 자율 장학시 교사 복무지침의 일환으로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사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개발하는 한편, 양성평등교육지침서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들에 의한 각종 폭력 및 교사들에 의한 지나친 체벌과 더불어 성폭력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이 학교의 위신이나 교권 보호의 미명하에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될 각급학교 평가시 학교 평가항목중의 하나로 설정한다. 교사 성폭력에 관한 것은 교직원 관리라는 큰 영역에 교사 성희롱 방

지를 위한 자율 장학 실시 여부 및 교사 성희롱 발생 빈도를 하부항목으로 설정하여 이를 평가하도록 한다.

5)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각급 교육청이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교사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청 평가시 반영한다.

6) 교사 양성과정시 교사들이 양성간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여성학이나 여성관련 과목(예: 여성심리학, 여성철학 등)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교사의 부당한 성적 희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성교육을 강화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금년부터 각급학교에 1학기에 10시간씩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성교육 교사 부족, 교과시간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이의 시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가능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 성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본 교사에 의한 성폭력 문제와 대처

김성애(중앙여고 교사)

현장에서 성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권위 때문에 일어나는 성폭력적인 것도 사실 성교육만 철저히 실시 된다면 미연에 방지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장에서 부딪치는 성폭력은 먼저 6) 지나온 것에 대한 마음 속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성 피해 경험을 자유스

6) 나는 초등학교 3학년때 한 40대정도 되보이는 대머리인 담임선생님을 만났다. 그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과 다른 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을 혼내는 방법이었다. 보통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막대기로 손바닥을 때린다거나 심할 경우엔 엉덩이를 때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좀 달랐다. 그 선생님은 허벅지를 꼬집었다. 자기 대에는 허벅지를 꼬집으면 아파도 창피해서 부모님께 보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만 그 아픔을 감수함으로써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명을 해댔다. 나는 그 당시 그 말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혼낸다는 것이(지금에야 깨달았지만) 아주 파렴치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모두 옳고 절대적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나와 마찬가지로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업드리게 했다. 그리고 허벅지를 꼬집었는데 보통 남자 아이들은 아!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여자 아이들은 아! 하는 소리는 나지 않고 자꾸 선생님 손을 피하려고 몸을 비비 꼬는 것이었다(참고로 그당시 여자 애들은 거의 치마를 많이 입었다). 나는 그때도 역시 좀 이상하다고만 느꼈을 뿐 그냥 대수롭게 넘어갔다. 하지만 당시 여자아이의 치마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꼬집는 모습은 좀 흥쩍하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날, 나도 한 번 걸려서 그 꼬집힘을 당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 아이들 여러명과 함께 차례차례 줄을 서고 있었다. 그 때도 남자애들은 아! 하며 허벅지를 손으로 박박 문지르며 자리에 앉았지만 여자애들은 그저 얄전히 꼬집힘을 당하고 돌아왔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고 그 선생님은 내 치마 안으로 손을 넣더니(그 때 나는 치마를 입고 있었다) 팬티 부근을 막 더듬는 것이었다. 난 너무 황당해서 순간적으로 얼굴이 시뻘개졌고 얼마 후에 자리로 돌아와 앉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이상하고 불쾌했다. 비록 난 그때 한 번 걸렸지만 불행하게도 그 당시 그 선생님한테서 귀여움을 받는 서너명의 여자애들은 항상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 책상으로 불러들어가 매번(참고로 초등학교 때엔 선생님 자리가 맨 앞쪽에 자리잡고 있었음) 그런 짓을 당했다. 지금 기억을 한 번 더듬으니까 그 선생님의 말투와 행위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성 변태 그 자체였다. 그 선생님은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회롱했다. 어쩌면 선생님이란 작자가 아니 그런 성 변태가 선생이 되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 아마 그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도 지금쯤 그 파렴치한 선생의 행위를 생각하며 쓴 맛을 다시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와서 그 선생님(?)을 찾아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 정말 그러기는 번거롭다. 솔직히 그런일을 당했다고 현재 내가 비행청소년이 되었거나 성에대한 정신적 질환이 있는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와서 그 기억을 더듬었을 때 불쾌할 뿐, 내가 여태껏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해 오는 과정들(비록 망각과 무지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방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게 있다면 바로 그 작자의 직업이 선생이랍데에 있다. 그것도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니, 한참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선생님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 어린것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다는 것은 차마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그것은 짐승보다 못한 것이다. 그 아이들 부모님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

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또한 앞으로 살면서 부딪힐지 모르는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게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때 조심스러운 것은 어느 선까지 '난 싫다'라고 표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얼른 보면 칭찬처럼 들릴 수 있는 말도 지나치면 회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자기 자신이 기분이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못하게 하는 것은 통제력을 유지하는 한 방법이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계선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의 인격에 손상을 준다고 생각되는 것, 즉 추파를 던지거나 음흉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성희롱의 범위에 들어 갈 수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상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기전인 사회적인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원칙을 알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희롱을 처리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나가야 한다.

물론 7)현재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에 대하여 실상을 파악하고 8)대처 방법도 알게 하고 있다.

또한 요즈음 부쩍 신문광고에 까지 임신부를 벗기기 시작 하더니 아이스크림

올것이며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앞으로 성에대한 어떠한 의식을 가질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거나 넓게 생각해 보면 그 따위 파렴치한 인간이 한 둘은 아닐 것이고 그 따인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 당한 여자아이들이 한두명은 아닐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저 이렇게 잔인한 사회가 안타까울 뿐이다. 결국 그 선생님 하나를 추방한다고 해서 나의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단지 나는 이 경험을 이런 식으로라도 고발하고 나니까 좀 후련할 뿐이다.

7)지하철(고1때)

신도림에서 지하철을 타고 당산역쯤 오는데 손에 (난 그때 폐휴지 박스를 들고 있었다.)자꾸만 뜨끈 뜨끈 한것이 느껴 지는 것이었다. 폐휴지를 확퍼서 손을 보니 어떤 아저씨가 자기의 성기를 내손에 대고 있었다.난 맨처음 그물체가 뭔지 몰라서 (왜냐하면 꼭 버섯모양 같은게 너무 컸기 때문이다.정말 너무나도 컸다)그 주인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 사람은 당황해서 성기를 확 집어넣고 당산역에서 사람들에게 밀리는 척 하며 내려 버렸다. 그제서야 그물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참으로 놀랐다. 난 매일 사촌동생 고추를 보았는데 그아이들 것은 모두 작은 고추 였다. 하지만 그 아저씨건 너무 컸다. 맨처음 보았을때 무엇인지도 몰랐으니까. 꼭 송이 버섯을 10배로 부풀려 놓은 것 같았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한심하고 불쌍하다.자신의 욕망하나 못 다스려서 자신의 인격을 망쳐 놓다니....

3)중3때 사생대회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그 때 마침 출근시간이라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다.

한참 친구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몸을 더듬는 것 같았다. 그래도 말도 줄이고 그것에 신경을 썼다. 그리고 한참 있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손을 손톱으로 꼭 꼬집었다. 너무 세게 꼬집어서 인지 내 뒤에 있던 20대 후반쯤 되보이는 아저씨가 작게 소리를 냈다. 그 아저씨가 범인이었던 것이다. 사실 난 그 아저씨가 너무 너무 깨끗하고 잘 생기고 젊어서 그 아저씨가 범인이라고는 생각도 안했다. 속았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당한것도 억울해서 복수를 해줘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철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괜히 넘어지는 척하면서 그 아저씨 발등을 밟고 또 팔꿈치로 배도 치고 그러면서 복수를 했다.

광고까지 여성을 벗기느라 범석인 것 같다. 성은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상품이다. 여성의 상품화에 익숙해 질수록 사회의 구성원들은 여성을 쾌락적인 도구로 다루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할 가능성이 커지며 동시에 여성의 역할은 남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라는 잘못된 역할 기대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로인해 성폭력이 더욱 만연 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민감하고 충동적인 10대. 그들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아우성치는 성적 자극으로부터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 볼 수 있는 9)능력을 심어주고 나아가서는 비판 할 수 있는 안목을 심어 주는 것이다. 그 속에서 의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0) 꿰뚫어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9) 【모둠별 수업 예시】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 어떠한 폐해가 있는지를 토론해 보자.

- ① 준비물: 여성의 몸을 이용한 상품 광고지 모아오기.
- ② 방법: 한 학급을 4-5그룹으로 나눈다. 광고지를 칠판에 붙여둔다.
- ③ 광고를 보면서 느낀점을 글로 써보게 한다. (15분 정도 시간을 줌)
- ④ 돌아 가면서 발표하게 한 후 느낀점을 이야기 하게 한다.

10)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진한 소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러면서 순수함은 사라지고 능글능글 하고 징그러운 남성들만 남게 되고 말 것이다.
♣저런 광고들을 보면 아마 남자들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지 못 할 정도로 흥분이 될 것 같다. '아! 이여자 잘 빠졌다. 아니 이렇게 심하게 노출된 광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를 상품화 시키고 또 여자의 몸을 이용 함으로 사람들의 눈을 자극 시킨다.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나는 저런 여자의 몸매를 보면 "여자를 상품화"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다. 그냥 '꼭 잘빠졌다' '엉덩이가 탱탱 한 걸?' '이 여자는 다리가 정말 예쁘다' '저 여자는 완전히 화장빨이다' '저 여자는 정말 얼굴만 예쁘다'는 등 그저 모델들만 보면서 그 모습만 가지고 농담 식으로 말하고 생각 하기만 했었다. 그런데 막상 여자의 상품화란 그런 말을 들으니 새삼 광고를 다시 보게 되었다.

결국 여성을 상품화 하는 시대에서 여성들은 신으로 부터 받은 고유한 성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는 것 같다.

♣광고에 나오는 여성들을 보면 하나 같이 몸매들이 인간의 몸매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다. 늘씬한다리, 가느다란 허리, 날씬하다 못해 뼈 밖에 없는 몸. 같은 여성들이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는 생각더 해본다. '난 왜 몸매가 이럴까? 어떻게 했길래 몸매가 저럴까?' 이런 요소들이 또한 여성들의 성형의 증대를 가져 온다고 생각한다. 컴퓨터로 조작한 몸매를 지니 몸매인 양 버젓이 광고에 나오는 것이다.

♣나는 Inch by Inch라는 다이어트 선전광고 표지를 잡지에서 보고 이끌리게 되었다. 아주 아주 잘빠진 여자의 알몸. 나는 그 약을 이용해 다이어트를 하면 나역시 알몸의 여자와 같은 몸매로 변 할 수 이셨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Inch by Inch라는 광고 말의 전화 번호를 내 수첩에 적었다. 이 광고를 본 여성들이 대부분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갖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고가 노리는 것은 무엇이며 그를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광고를 봐야 하겠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성과 행복'이라는 성교육 전문 책자가 나온 만큼 공교육에서 성에 관한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확실하게 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힘들게 교육 해오던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책은 주어 졌지만 방법이라든가 방향 설정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못해서 막상 현장에서 실시 하고자 할 때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제적인 성교육 전담부서 설치하라 -- 성교육 전담 상담교사의 체계적 양성과 전문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라.

형식상의 기구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가 있어야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 하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성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도 없고 장학사도 없다. 방향제시도 없다. 책은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고충이 크다. 현재 교육을 실시 하고자 원해도 교사 자체가 어느 선까지,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이 막막하다. 본인 자신이 성에 대한 개념 정립도 문제가 되지만 배우고 싶어도 어디에 가서 배워야 할지 상급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2. 실제적인 시간을 확보 하라.

현재는 학교가 알아서 시간을 마련해 성교육을 실시 하라는 명령만 시달 되고 있을 뿐이다. 현장에서는 자신의 업무만으로 파김치가 되는 판국에 시간 만들어서 하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된다.

3. 시청각교재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라.

교재자체도 시원 한 것이 없다. 정말 궁금하고 가르쳐야 될 생리적인 부분까지도 10여년 전에 만들어진 슬라이드가 그대로 있는 상태다. 상업적인 비디오가 판을 치는 시대에 청소년 시각에서 공감하고 고뇌하며 함께 풀어 갈수 있는 비디오가 거의 없다. 투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4. 치료 전문기관이 학교와 연계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성병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보건소에 의뢰를 했더니 혈액과 뇨 검사만 했다. 가장 중요한 질 분비물 검사가 빠져 있었다. 그들의 태도도 학생들을 아주 경멸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서 너무나 혐오스러웠다고 한다. 이제는 전문기관이 학교와 연계 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 해주면서 신체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까지 병행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성폭력 피해 상담 총 건수 : 2,154건

소담상(성폭력) 상담 건수(성폭력) 상담 건수(성폭력) 상담 건수(성폭력)

교사에 의한 성폭력상담총 117 건															
교사분류 및 피해 구분시기	유 치 원	학 교			학 원			과외 및 기타 교 육 장			계				
		초	중	고	유 치 원	초	중	고	유 치 원	초		중	고		
		성희롱 및 추행	29	13	62	4	4	1	1	2		4	1		
강간	3	14	11		3	2	1			1	3		38		
계	32	27	73	4	7	3	2	2	4	2	3		159		
		132			16			11							
가 해 자	성 희 롱 및 추 행	21세- 30세		1	2	2			1	1				7	
		31세- 40세	4	1	7	1	2			1				16	
		41세- 50세	9		7				1					17	
		51세- 60세	6	8	1									15	
		61세 이상	2		2			1			3	1		9	
		미 상	8	3	1	1	2							15	
		21세- 30세			1								1	2	
		31세- 40세		1	6							1	2	10	
41세- 50세	3	5	3		1							12			
51세- 60세		3										3			
61세 이상															
미 상		5	1		2	2	1						11		

상담사례로 본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다음은 한국여성의전화 및 전국 10개 지부에 부설 운영중인 총 11개 지역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5건을 정리한 것이다. 내담자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성폭력의 유형을 되도록 유지하면서 내용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가해 교사는 모두 남교사, 피해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다.

사례1. 고등학교 학생주임의 일상적인 성추행

한 전산고등학교 학생주임이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나오라고 하여 노래방에 데리고 간 후 한 학생씩 다로 다로 심부름을 시켜 내보내고 한 학생만 남았을 때 학생의 젖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학생을 차에 태우고 교외에 나가서는 학생 손을 자신의 성기위에 갖다놓는 등, 여러 학생이 그 교사에 게 당했다. 학생들에게 '너희 성경험 많지'라고 물어 희롱하기도 한다. 한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얘기했으나 담임교사도 어쩔 수 없다고 속수무책이다.

사례2.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성희롱

한 야간고등학교 내에 30대 후반인 담임교사가 반 학생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자주 한다. 일을 시켜 책상위에 올라간 학생의 다리를 보며 '미끈하다'고 하는 등,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의 귀, 뺨을 만지거나 팔 안쪽을 꼬집는 등의 행동을 하고 엉덩이에 자주 손을 대기도 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싫고 혐오스러운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사례3. 초등학교 교감의 성추행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2년간에 걸쳐 교무실, 복도, 화장실 부근에서 '예쁘다'면서 학생들을 붙들고 끌어안거나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고 심지어 학생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을 하였다. 또 방송실에서 학생을 무릎에 앉히고 몸을 더듬는 등의 상습적인 성추행으로 6학년 학생들이 가까이 가면 안된다고 하는 기피 인물이었다.

끝내 학생 5명이 112에 직접 신고하였고 특히 학생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학부모들이 고소하여 교감이 긴급구속되었다. 학부모들은 학교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가정통신문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여 학부모들의 분노를 샀다. 학교와 주변 동네에서는 교감이 아니라 피해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문이 돌면서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담임교사들은 고소를 취하하도록 학부모들을 계속 찾아가는 등 압력을 주었다. 학부모들은 마침내 피해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과 더이상의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서 고소를 취하였으나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청주여성의전화는 지역의 7개단체로 '권교감 구속 수사 촉구와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학부모 면담, 상담, 다른 피해자 조사, 가두시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교육청에서 권교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권교감 파면 촉구성명을 발표, 2차에 걸친 파면징계촉구 시위, 교육청 징계위원장 및 위원 면담 등으로 노력하였으나 교감 해임징계로 결정이 내려졌다.

사례4. 고등학교 교장에 의한 상습적인 학생 성추행

여상에 재학중인 학생은 건강 문제로 장기간 결석을 하게 된 후 어머니와 교장실로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부탁하니 교장은 너그럽게 이해하며 학생을 자기에게 맡기고 어머니를 귀가하게 했다. 혼자 남겨진 학생에게 교장은 반성문 쓰는 척 하며 자기에게 편지를 쓰라하고 학생들과 포옹,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담긴 앨범을 보여주며 '애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며 사진찍기를 종용하였다. 서무실 직원이 와서 교장의 양무릎에 학생이 앉고 목을 끌어안고 학생의 허리를 잡는 등의 밀착된 자세를 강요하여 여러 번 사진을 찍었고 그 후 수영복 입은 학생과 끌어안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여름에 여행갈 의향을 물었다. 친구들과 여행간다 하니 '그 애들은 나쁜 아이들이니 나랑 같이 가자. 단들이 가고 싶다'고 유인하였다. 또 앨범에서 다른 학생의 사진을 두고 그 학생에 대한 사실 무근한 비난과 모략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신의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며 '그때 만났으면 못사귀었겠네' 라고도 하였고 자기가 단들이 여행가자고 한 사

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학생은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교장실을 빠져나와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교장이 음해한 학생에게 전화로 사실을 전했다. 담임교사에게도 알렸으나 담임은 교장선생님을 믿고싶다고 하였다.

그 후 학생의 가족이 교장을 찾아가 항의하고 사진 찍은 필름을 달라고 하자 필름을 잡아뽑아 쓸수 없게 만들어 주면서 '다른데 쓸 것 같아 그런다'며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학생이 원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 하였으나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는 원래 사진을 찍기 싫어한다고 다그치니 교장이 끝내 시인하였다. 가족이 수차 요구하여 학생에게 보여주었던 앨범을 보고 확인하였다. 학생의 가족과 교장이 거짓으로 비난하고 음해하려 한 학생의 가족, 교장, 담임, 서무과장이 모인 자리에서 교장의 언행을 확인하고 진상을 밝히려 했으나 교장은 부인하고 앨범 공개도 불응하며 오히려 학생이 말을 잘못된 것이라고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후 기자들이 학생 가족들 입회하에 조사하자 교장은 사실을 시인하고 신문에 기사가 게재되었고 시경 기자실에 교장 사위가 찾아가 '교장은 선도차원이었고 학생 측이 무기정학을(장기 결석으로 인한) 면하려 항의한 것이며 이는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감과 학생주임은 학생에게 '방학 끝나면 나와라. 처벌하지 않겠다'고 회유하였다.

사례5. 중학교 교사에 의한 지속강간

한 교사로 부터 1년 2개월에 걸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수차례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다.

교사는 '탁구를 가르쳐 줄테니 다른 사람들 모르게 오라'고 유인해 뒤에서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자신의 배를 학생에게 밀착시키고 한쪽 손으로 학생의 배, 가슴 등을 만져서 학생은 반항하며 탁구실을 뛰쳐나갔다. 다음날 교사는 가르쳐 줄 것이 있다며 그 학생을 관사로 오라 하였고 아무도 안보게 뒷문으로 오라고 유인하였다. 학생이 들어가니 이불이 깔려있고 교사가 누우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학생의 손을 입속에 넣고 빨고 애무를 시작했다. 1시간이 넘게 지난 후 학생이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고 교사는 학생에게 내일도 오라고 했다. 다음날 교사가 전화로 오라고 유인해서 학생이 마지못해 찾아가니 이불이 또 깔려 있고 교사는 잠깐 나갔다 온다며 나갔다. 이때 학생이 나가려 하자 들어와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기 시작해 강간을 한 후 절대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 경찰

이나 다른 교사에게도 대답하면 안된다고 다그쳤다. 또 학생에게 전학가기를 종용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네가 학교다니기 힘들어진다. 도시로 나가야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 피해 학생은 시골의 작은 분교에 다니고 있었고 같은반 다른 학우는 남학생 한명 뿐이었는데, 이후 교실에서 교사는 다른 학생이 못보도록 등을 돌려 학생의 몸을 만졌고 방학때 다른 친구도 나온다고 학생을 거짓 유인해 자가용에 태우고 산속으로 가서 몸을 만지고 성추행 하였다. 그 후 학생은 교사의 만나는 요구가 너무 무서워 가출을 하였고 한달 후 그래도 학교를 가야 할 것 같아 집에 돌아왔는데 일주일 후 그 교사는 또 강간하였고 몇개월 후 또다시 학생을 거짓말로 속이고 불러내어 여인숙으로 데리고 간 후 완강히 거부하는 학생을 강간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어디에도 내 이름을 쓰지 말라고 협박하였다.

1년에 걸친 지속적인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학생은 갈수록 정서 불안 증세를 겪으며 이일을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공책에 써놓았는데 동생이 우연히 보고 같은 동네 다른 언니에게 보여주었고 그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보여 주어 다른 교사와 피해 학생의 분교장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자 가해 교사는 피해 학생에게 화를 내었고 학생은 더 무서워했다. 가해 교사는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직을 그만두었고 학생은 이 일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자기 외에 더 어린 아이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 한 것을 알게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은 심리적으로 불안증을 보여 심한 잠꼬대를 하고 그 충격을 잊기 위해 노래를 흥얼거리며 하루 종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등을 보며 동생이 이상하게 여겼다. 학생은 평소 그 교사가 자기 집 관사로 학생들을 종종 불러 음식도 해주고 해서 그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고 학생에게 금반지를 사주겠다 하고 실제로 은반지를 3차례 사주는 등 마음을 사려고 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학생의 어머니가 상담소를 찾아와 상담하며 함께 대책을 강구했고 사직한 그 교사 (김씨)가 학생에게 전화해 고소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으나 피해자 측은 사회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소하였다. 상담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 상담을 병행하며 경찰에 진술할 때 참관하고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학생의 정신과 진단서와 병가로 인한 결석계를 내어 출석 문제를 해결하였다. 가해자 김씨와 학생의 부모가 협의하여 고소는 취하되었으며 교육청은 관계공무원 4인을 경고처분했고 김씨의 퇴직금

에 이 사실로 인한 책임을 물어 감봉처리 할 것이라는 회답을 주었다.

사례 6. 특수학교 교사에 의한 성추행

신체장애로 특수학교에 다니는 한 여중생이 다른 공부는 다 잘 하는데 영어가 떨어져서 방과 후 어머니가 데리러 오기까지 남는 시간 동안 교무실로 지난 학년의 담임이었던 영어교사를 찾아가 배우곤 하였다. 1년 이상의 시간동안 이 교사를 믿고 잘 지내오던 어머니는 사정이 있어 늦게 데리러 올 때 이 교사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돌봐달라고 부탁해왔다. 하루는 선생이 방과 후 비어있는 교실로 가서 공부하자고 제안하고 가서는 책상 위에 앉으라 하여 학생을 포옹하고 벽에 기대 서도록 밀고는 가슴을 만졌다. 신체 장애가 있지만 비장애인 언니 보다 총명하고 신뢰로왔던 학생은 너무 싫은 느낌으로 거부하자 담임은 '착하지, 너도 곧 좋아하게 될거야'라고 했고 '너도 이제 이런것 까지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않는 나이다'라고 했다.

집에 와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말은 못하고 어머니는 학교에서 좀 이상히 여겼으나 괜찮으려니 하고 지나갔다.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 또 어머니가 늦게 오게 되고 교무실에 선생과 남아 있으려니 선생이 지난번 교실로 가기를 제안했고 학생이 '싫어요, 안가요' 하니까 '지난 번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얘기했니'라고 물어서 학생이 고개를 저었다. 둘만 남은 교무실에서 교사는 학생을 귀엽다는 식으로 무릎에 앉히더니 허벅지를 만지며 볼에 부본다. 신체적인 대응 능력이 약한 학생은 이 상황에서 교사의 몸을 밀쳐 몸을 빼려고 노력했지만 학생의 몸을 꼭 붙들고 있는 교사에게 역부족이었다. 몇 분이 흐르고 교사는 놓아 주었고 이후 어머니와 집에 귀가한 학생은 그때서야 울며 몸을 떨고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 놓았다. 학생의 분노와 혐오감은 너무 심했고 이 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음 날 어머니와 학교에 가서 담임교사에게 이 일을 말하고 함께 가해한 교사를 만난자리에서 교사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예쁘다고 그런 것이고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무마하려 했다. 약하게나마 자기 행동을 시인하던 교사는, 이후 다시는 학내에 이런 일이 없어야 겠다는 학생과 어머니의 결의로 마련한 학생주임과 교감선생님이 함께 한 자리에서 발뺌을 했고 '정박아'인 학생의 말을 믿으며 역설하고 학생과 부모에게 상처를 주었다. 담임교사도 학교 편에서 학생과 부모에게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것을 부탁하며 교감 앞에서는 영어교사의 편에서

이전에 들은 내용을 부인했다.

학생은 고통을 치며 깊은 상처와 분노를 표현했고 영어선생을 꼭 응징해야 한다는 결의에 차있고 어머니도 학교 이사장 및 교장, 교감을 통해 영어선생의 징계를 위해 노력하지만 이 일이 아이의 성장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지, 학교에서 피해자로 남지 않을지 몹시 불안하고 학교측도 이 일을 무마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듯 하다.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 예방 지침

☒ 선생님들께

이런 행동은 학생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이런 행동은 성폭력이 되므로 하지 맙시다.

- ☐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긴다.
- 팔의 겨드랑이 근처를 만지작 거린다.
- 몸을 아래위로 뚫어져라 훑어 본다.
- 가슴 크기, 엉덩이 등 외모에 대해 얘기한다.
- 성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 다리를 만진다.
- 치마를 들춘다.
- 평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신체 부위를 보여준다.
- 가르쳐 주는 것을 핑계로 몸을 밀착한다.
- 가슴, 배, 등, 엉덩이, 성기 등 평소 자연스럽게 접촉하지 않는 부분을 만지거나 건드린다.
- 성관계를 요구한다.

주위에 이런 행동을 하는 교사가 있을 때,

- ☐ 교육 환경과 학생의 성장을 해치는 행위임을 알려준다.
- 학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다.
- 교사가 행동을 중단하고 사과, 반성하도록 한다.
-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행위일 경우 공식적으로 교사를 징계하여 학교와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한다.

☒ 학생들께

위와 같은 행동을 겪거나 강제로 성행위를 당했을 때,

- ☐ 상대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싫은 것을 거부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 부당한 행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용이나 인내는 나에게 대한 학대이며 상대와 우리 모두를 해치는 것이다.
- 지역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는다.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운영안내

I. 구성

- 소 장 : 1인
 운영위원회 :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약간명, 전문상담원, 학계, 변호사, 의료계 등
 전문위원 : 의사(산부인과, 정신과), 변호사,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 상담심리, 청소년학 관련 교수 및 전공자, 경찰 등 관련전문가
 법률상담 :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문상담원 : 2인 자원상담원 및 법정 지원팀 : 15인

II. 전반 활동

1. 상담

사무전화: 269-2965(대)
 상담전화: 263-6471
 F A X : 269-2966

- 전화상담: 월 ~ 금 오전 10시 - 오후 1시 / 오후 2시 - 5시
 면접상담: 전화상담 후 예약
 월요 무료 법률상담: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본 상담소에서 성폭력피해 내담자의 법률적 대응 상담

2. 인권활동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폭력피해 내담자를 위한 탄원, 진정 등의 활동

3. 의료, 법률연계

- 병원 연계: 산부인과, 정신과, 내과 전문위원
 변호사 연계: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문 법무사와 법적 대응 모색
 형사적 연계: 고소, 신고절차 협력

4. 교육

- 보건복지부 지정 성폭력상담원교육 실시
 여중생 성교육, 성폭력 예방을 위한 "딸들을 위한 캠프" 실시
 자녀 성교육을 위한 어머니교육 실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개최
 각 교육기관, 어머니회 등 출강

5. 연구

- 연구기획위원: 청소년학, 교사, 여성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전공 회원과 각 분야 활동가로 구성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연구개발

성폭력상담기관 소개

"모두가 평등하고 아름답게 누려야 할性は 우리의 인권입니다"

지역마다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하는 일> ☎ 상담

성폭력피해 상담 및 의료, 법률 연계
 청소년 성상담

☎ 교육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 성교육 강사모임 운영
 방학 중 딸들을 위한 캠프 개최

☎ 조사연구

성폭력, 성교육 실태조사 및 대책 연구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상담 : 02-263-6471 사무 : 02-269-2965(대)

인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이하 지역명만 표기.)

인천광역시 북구 십정동 575-23 2층
 상담 : 032-504-3405 사무 : 032-527-3713

수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6-10 3층
 상담 : 0331-32-6888 사무 : 0331-32-7780

성남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3-4 한신플라자 922호
 상담 : 0342-730-1120 사무 : 0342-730-1370

인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98번지
 상담 : 032-934-1901 사무 : 032-934-1900-2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 5동 1016-6 성우빌딩 2층
 상담 : 062-363-0487 사무 : 062-363-7739

- 부산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 1동 39-31 9/5 2층
 상담 : 051-817-6474 사무 : 051-817-4321
 * 24시간 위기센터 운영
-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2동 1002-37번지 2층
 상담 : 053-475-8083 사무 : 053-475-8084
-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633번지 2층
 상담 : 0431-274-1509 사무 : 0431-272-9953
-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100-2 현대오피스텔 511호
 상담 : 0551-66-3722/4933 사무 : 0551-62-7776
- 울산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성남동 68-4
 상담 : 0522-211-1205 사무 : 0522-45-6713
-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중앙동 1가 43-1
 상담 : 0652-83-9855 사무 : 0652-87-7324

● 다른 성폭력상담기관 안내

한국성폭력상담소 02) 529-4271~2, 573-1888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 02) 643-8424

아동학대예방협회 02)776-5660

서울YMCA 청소년 상담실 02) 599-8462

여성의 소리 (천안) 0417) 574-2000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주) 0652) 87-1658

경남여성회 성폭력상담소 0551) 44-8400

부산여성회 성폭력상담소 051) 817-8228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의식과 실태에 관한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청소년의 성교육, 성폭력 예방운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에 이름을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 응답내용은 청소년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가 유일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디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 12.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주소:서울 중구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Tel : 02-269-2965 (사무) 02-263-6471 (상담)

* 개인사항

1) 성별 ① 남자 _____ ② 여자 _____

2) 학교 및 학년

중학교 ① 1학년 _____ ② 2학년 _____ ③ 3학년 _____

고등학교 ① 인문계 _____ ② 실업계 _____

① 1학년 _____ ② 2학년 _____ ③ 3학년 _____

3) 거주지 _____도 _____군
 _____시 _____구

I. 우선 성역할 규범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V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여자는 암전하고 여자다워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2) 여자는 예뻐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3) 엄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_____	_____	_____	_____
4) 남자가 집안일을 하면 보기 안좋다	_____	_____	_____	_____
5) 아버지가 우리집안을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6) 여자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7) 여자도 할수 있으면 사회에 나가 성공해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8) 여자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9) 여자는 남자보다 순결을 꼭 지켜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10) 남자는 어느 정도 공격성이 있어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II. 다음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들입니다. 자세히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것에 V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성폭력은 여자가 몸조심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2) 성폭력은 남자가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3) 여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성폭력은 피할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4) 강간당한 여자는 순결을 잃은 것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5) 밤늦게 돌아 다니다 강간을 당하는 것은 여자책임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6) 성폭력을 당하는 여자는 행실이 나쁜 사람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7)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III.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해당사항에 V해 주세요.

	많이 불안하다	조금 불안하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1) 낮에 혼자 집에 있을 때	_____	_____	_____	_____
2) 어두워진 뒤에 집에 혼자 있을 때	_____	_____	_____	_____
3) 밤에 혼자 외출하거나 귀가할 때	_____	_____	_____	_____
4) 여자친구들끼리만 유원지나 산에 놀러갈 때	_____	_____	_____	_____
5)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낯선 남자를 만날 때	_____	_____	_____	_____
6) 엘리베이터 안에 낯선 남자와 둘이 있을 때	_____	_____	_____	_____
7) 엘리베이터 안에 아는 아저씨와 둘이 있을 때	_____	_____	_____	_____
8) 혼자 집에 있을 때 동네 아저씨가 방문했을 때	_____	_____	_____	_____
9) 교실이나 방에 남자 선생님과 둘만 남았을 때	_____	_____	_____	_____

IV. 다음을 읽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V-1. 다음과 같은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V해 주십시오.

	한두번 있다	여러번 있다	한번도 없다
1) 선생님이 내게 성적인 언어를 쓴 적이 있다.	_____	_____	_____
2) 선생님이 (야단치면서) 브래지어끈을 잡아 당긴적이 있다	_____	_____	_____
3) 선생님이 (예뻐하면서) 젖가슴 옆 겨드랑이를 만지작거린 적이 있다	_____	_____	_____
4) 선생님이 (훈계 도중) 엉덩이나 젖가슴이 너무 나왔다, 너무 없다고 말하면서 만지작거리고 막대기로 쿡쿡 찌른적이 있다	_____	_____	_____
5)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며 가르친 적이 있다	_____	_____	_____
6) 선생님이 (칭찬하면서) 등이나 엉덩이를 은근히 만졌다	_____	_____	_____

IV-2. 다음과 같은 것을 주변 친구들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친구가 경험한 것을 들었거나 본 적이 있다면 해당사항에 V해 주십시오.

	한두번 있다	여러번 있다	한번도 없다
1) 선생님이 친구에게 성적인 언어를 쓴적이 있다	_____	_____	_____
2) 선생님이 (야단치면서) 브래지어끈을 잡아 당긴적이 있다	_____	_____	_____
3) 선생님이 (예뻐하면서) 젖가슴 옆 겨드랑이를 만지작거린 적이 있다	_____	_____	_____
4) 선생님이 (훈계 도중) 엉덩이나 젖가슴이 너무 나왔다는 등 몸에 대해 말하면서 막대기로 쿡쿡 찌른적이 있다	_____	_____	_____
5)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친구에게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며 가르친 적이 있다	_____	_____	_____
6) 선생님이 (칭찬하면서) 등이나 엉덩이를 은근히 만졌다	_____	_____	_____

IV-3. 나의 경우, 이와같은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① _____ 유치원 때 ② _____ 초등학교 때 ③ _____ 중학교 때 ④ _____ 고등학교 때

IV-3-1. 나의 경우,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① _____ 학교 선생님 ② _____ 학원 선생님 ③ _____ 과외 선생님

IV-4. 친구의 경우, 이와같은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① _____ 유치원 때 ② _____ 초등학교 때 ③ _____ 중학교 때 ④ _____ 고등학교 때

IV-4-1. 친구의 경우,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① _____ 학교 선생님 ② _____ 학원 선생님 ③ _____ 과외 선생님

IV-5. 위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자신이나 친구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합니까?

- ① _____ 아무소리도 못하고 그만 두었으면 하고 바래다 ② _____ 싫은 표정을 짓는다
 ③ _____ 선생님께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④ _____ 손으로 뿌리치거나 몸을 돌려 버린다
 ⑤ _____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⑥ _____ 도망간다
 ⑦ _____ 기타(_____)

IV-6.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자신이나 친구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은적이 있습니까?

- 있는대로 모두 V해 주십시오.
 ① _____ 그 선생님 과목은 공부하기 싫었다
 ② _____ 내가 불결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③ _____ 학교를 다니기가 싫었다
 ④ _____ 아무하고도 얘기하거나 만나기 싫어졌다
 ⑤ _____ 아무렇지도 않았다
 ⑥ _____ 기타(_____)

IV-7. 위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자신이나 친구들이 그 일로 누군가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누구입니까?
 ① _____ 부모님 ② _____ 선생님 ③ _____ 선배 ④ _____ 상담소
 ⑤ _____ 친구 ⑥ _____ 없다(없다면 IV-10으로 가세요)

IV-8. 있었다면, 그들은 주로 뭐라고 하였습니까?

- ① _____ 별일 아니니 그냥 넘어가라고 했다
 ② _____ 나나 친구만 조심했으면 그런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③ _____ 서로 얘기하면서 선생님 욕만 했다
 ④ _____ 분개하면서도 참으라고 했다
 ⑤ _____ 선생님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했다
 ⑥ _____ 적당한 대응책을 찾아보라고 했다 => IV-9. 대응을 했다면 어떤 방법을 썼으며, 그 결과 어떠했는지 상세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⑦ _____ 기타(_____)

IV-10. 없었다면, 왜 하지 않았습니까?

- ① _____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② _____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③ _____ 말하기 창피했다
 ④ _____ 기타(_____)

V. 다음을 읽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V-1 다음과 같은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V해 주십시오.

한두번 여러번 한번도
있다 있다 없다

- 1) (방과후에 남았을 때) 선생님이 옷 속으로 내 몸을 만지거나 자기의 몸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한 적이 있다
- 2) 선생님이 나를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한 적이 있다
- 3) 선생님이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 4) 선생님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V-2 다음과 같은 것을 주변 친구들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친구가 경험한 것을 들었거나 본 적이 있다면 해당사항에 V해 주십시오.

한두번 여러번 한번도
있다 있다 없다

- 1) (방과후에 남았을 때) 선생님이 옷 속으로 친구 몸을 만지거나 자기의 몸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한 적이 있다
- 2) 선생님이 친구를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한 적이 있다
- 3) 선생님이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 4) 선생님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V-3. 나의 경우, 이와같은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 ① 유치원 때 ② 초등학교 때 ③ 중학교 때 ④ 고등학교 때

V-3.1. 나의 경우,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 ① 학교 선생님 ② 학원 선생님 ③ 과외 선생님

V-4. 친구의 경우, 이와같은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 ① 유치원 때 ② 초등학교 때 ③ 중학교 때 ④ 고등학교 때

V-4.1. 친구의 경우,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 ① 학교 선생님 ② 학원 선생님 ③ 과외 선생님

V-5. 위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자신이나 친구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합니까?

- ① 아무소리도 못하고 그만 두었으면 하고 바랬다
- ② 싫은 표정을 짓고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 ③ 손으로 뿌리치거나 몸을 돌려 버린다
- ④ 도망간다
- ⑤ 못하게 저항한다
- ⑥ 모르겠다
- ⑦ 기타()

V-6.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자신이나 친구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은적이 있습니까? 있는대로 모두 V해 주십시오.

- ① 그 선생님 과목은 공부하기 싫었다
- ② 내가 불결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 ③ 학교를 다니기가 싫었다
- ④ 아무하고도 만나거나 얘기하기 싫어졌다
- ⑤ 죽고 싶었다
- ⑥ 기타()

V-7. 위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자신이나 친구들이 그 일로 누군가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 ① 부모님 ② 선생님 ③ 선배 ④ 상담소
⑤ 친구 ⑥ 없다(없다면 V-10으로 가세요)

V-8. 있었다면, 그들은 주로 뭐라고 하였습니까?

- ① 그냥 잊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하라고 했다
 - ② 나나 친구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했다
 - ③ 서로 얘기하면서 선생님 욕만 했다
 - ④ 선생님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하였다
 - ⑤ 무슨 방법을 찾아 대응하자고 했다
- V-9. 대응을 했다면 어떤 방법을 썼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상세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 ⑥ 기타()

V-10. 없었다면, 왜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 ①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 ② 말하기 창피했다
- ③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다
- ④ 죽고 싶은 마음만 들어 아무 생각도 못했다
- ⑤ 말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 ⑥ 기타()

VI. 다음은 몇가지 사례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자신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해당 사항에 V해 주십시오.

	소름끼친다	불쾌하다	신경쓸일 아니다
1) 차 안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몸을 내게 비벼 대거나 내 몸을 만지작 거린다	_____	_____	_____
2) 선생님이 (야단치면서) 브래지어끈을 잡아 당긴다	_____	_____	_____
3) 선생님이 (칭찬하면서) 젖가슴 옆 겨드랑이를 만지작거린다	_____	_____	_____
4) 선생님이 (훈계 도중) 엉덩이나 젖가슴이 너무 나왔다, 너무 없다고 말하면서 만지작거리고 막대기로 쿡쿡 찌른다	_____	_____	_____
5)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며 가르친다	_____	_____	_____
6) (방과후에 남았을 때) 선생님이 옷 속으로 내 몸을 만지거나 자기의 몸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한다	_____	_____	_____
7) 선생님이 나를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한다	_____	_____	_____
8) 선생님이 (칭찬하면서) 등이나 엉덩이를 만지작거린다	_____	_____	_____

VII. 다음은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것에 V해 주세요.

	성폭력이다	성폭력으로 볼수도 있다	성폭력이 아니다
1) 모르는 사람이 PC통신으로 보내온 음란물을 우연히 보았다	_____	_____	_____
2) 전철안에서 옆의 남자가 일부러 자꾸 몸을 비벼댄다	_____	_____	_____
3) 선생님이 (야단치면서) 브래지어끈을 잡아 당긴다	_____	_____	_____
4) 선생님이 (예뻐하면서) 젖가슴 옆 겨드랑이를 만지작거린다	_____	_____	_____
5) 선생님이 (훈계 도중) 엉덩이나 젖가슴이 너무 나왔다는 등 말하면서 막대기로 쿡쿡 찌른다	_____	_____	_____
6) 선생님이 (칭찬하면서) 등이나 엉덩이를 은근히 만진다	_____	_____	_____
7)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며 가르친다	_____	_____	_____
8) (방과후에 남았을 때) 선생님이 옷 속으로 내 몸을 만지거나 자기의 몸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한다	_____	_____	_____
9) 나는 원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내가 예쁘다면서 강제로 나를 껴안거나 키스를 한다	_____	_____	_____
10) 선생님이 성관계를 요구한다	_____	_____	_____

VIII.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성폭력 교육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VIII-1. 학교에서 성폭력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받아 보았습니까?

①초등학교 때 _____ 번, ②중학교 때 _____ 번, ③고등학교 때 _____ 번

VIII-2. 현재 학교에서의 성폭력 교육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 ① _____ 수업시간에 잠깐 동안 언급한다
- ② _____ 시간을 정해 상세하게 교육한다
- ③ _____ 가정통신문을 통해 읽어보게 한다
- ④ _____ 아무것도 행해지고 있지 않다